

## 경남 함안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간행양상\*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in Haman (咸安) County Area, Gyeongnam Province of Korea

송 정 숙 (Song, Jung-Sook)\*\*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함안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 경향 분석 |
| 2. 함안지역 목활자본 문집 간행의 사회·문화적 배경 | 4. 맺음말<br><참고문헌>          |

### < 초 록 >

이 연구는 경상남도 함안지역에서 간행된 68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대상으로 문집 간행의 구체적인 양상과 출판문화사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우선 함안의 역사, 함안의 인물, 함안의 서원과 책판 조사를 통해 목활자본 문집 간행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목활자본 문집 68종을 대상으로 문집의 유형, 저자사항, 간행사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1) 문집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문집 68종 가운데 문집은 41종(60.3%), 유집은 16종(23.5%), 실기는 11종(16.2%)이다. 전체 68종의 문집 가운데 1인의 시문집인 별집(別集)은 67종(98.5%)이고, 2인 이상의 시문집인 합집은 1종(1.5%)으로 『모암송계합고』가 유일하다.

(2) 목활자본 문집 68종 가운데 출생연도가 파악된 저자 66인의 출생연도를 분석해 보면, 저자 66인은 모두 조선 시대 인물로서 15세기 전반인 1436년에 출생한 『매헌선생실기(梅軒先生實記)』의 이인형(李仁亨)부터 19세기 후반인 1893년에 출생한 『금계집(琴溪集)』의 조우식(趙祐植)까지 457년의 간극이 있다. 함안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저자 66인의 출생연도 분포를 100년 단위로 분석해 보면, 15세기 5인(7.5%), 16세기 14인(21.2%), 17세기·18세기 9인(13.6%), 19세기 29인(43.9%)으로 19세기 인물이 가장 많고, 다음이 16세기이며, 17세기·18세기, 15세기의 순이다.

(3) 목활자본 문집 68종을 간행한 저자 68인의 성관은 모두 21성씨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성관은 15종을 간행한 함안조씨이고, 다음은 10종을 간행한 순흥안씨, 다음은 7종을 간행한 창원황씨, 다음은 5종을 간행한 채령이씨와 성산이씨, 다음은 4종을 간행한 광주안씨와 김해김씨, 다음은 3종을 간행한 인천이씨, 다음은 2종을 간행한 경주박씨와 장수이씨이며, 1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성관은 경주김씨 등 11성씨이다.

(4) 경남 함안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68종은 모두 19세기 이후에 간행되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20세기 전반부인 1900년~1949년까지의 50년 동안에 전체 68종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51종이 간행되고 20세기 후반부인 1950년~1973년 까지 11종이 간행되어 20세기에 62종(91.2%)이 간행되었고, 19세기에 5종(7.4%)이 간행되어 함안에서 대부분의 목활자본 문집이 20세기에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경남 함안지역에서 간행된 68종의 목활자본 문집은 저자 사후 2년부터 사후 492년까지 문집이 간행되었다. 전체 문집 68종 가운데 100년 단위로 보면, 목활자본 문집은 저자 사후 1-100년 사이에 32종(47.1%)이 간행되었으며, 저자 사후 101-200년 사이에 11종(16.2%), 저자 사후 201-300년 사이에 13종(19.1%), 저자 사후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1025938).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투고일: 2020년 11월 20일 최초심사일: 2020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24일

서지학연구, 제84집, 57-97,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4.57>

301-400년과 401-500년 사이에 4종(5.9%)이 간행되었다.

(6) 문집 68종 가운데 문집의 간행소를 파악할 수 있는 문집은 34종이다. 함안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의 발생소를 분석한 결과 재실(齎室)이 14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누정(9종), 서당(4종), 서원(2종) 순이다.

(7) 함안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68종 가운데 권말의 판권지가 있는 책은 16종으로 인쇄자, 즉 각수는 함안의 이장호, 이현량, 국진호, 이의갑, 임기후, 진기술 등 6인, 고령의 전해택, 함 7인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진주, 의령 등 인근 지역의 연구와 비교하면 함안지역 목활자본 문집간행의 독자성이 더욱 명료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要語: 목활자본, 문집 간행, 경상남도 함안군, 목활자, 인쇄 출판의 역사

#### <ABSTRACT>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some aspects of the publication and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publishing and cultural history of 68 volumes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at Haman county area in Gyeongnam Province. First of all, the history of Haman, the figures of Haman, the Confucian Academy and the printing woodblocks of Haman were investigated to examine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the publishing.

The author analyzed type of collections of works, their birth year and the family name of the author, the place and the year of the publication, and the printers of these different 68 kinds of the collections of work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collections of works demonstrate their forefathers' academic competencies. The types of collections of works were divided into 3 types, Munjip (文集), Yujip (遺集), and Silgi (實記). Of the collections of works 60% were Munjip. The authors were local intellectuals. Of these authors 44% of authors were born in the 19th century. Twenty-one lineage groups published collections of works at Hamam area. Seventy-five percent of the publications were published from 1900 to 1949. In terms of place, most collections of works were published in the worshipping halls for their ancestors. Forty-seven percent of the collections of works were published within 100 years after the author had died. Of these 86% of the book printers were from Haman area.

I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compared with studies in nearby areas such as Uiryeong, Jinjoo, it is expected that the uniqueness of the Haman area will be revealed more clearly.

Key words: wooden movable-type printing, printing and publishing of collections of works, Haman(咸安) area, Gyeongnam Province, history of printing and publishing

## 1. 머리말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장소는 텅 빈 공간이 아니다. 장소는 인간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특성을 드러낸다. 이것이 장소성이다. 이 장소성에 인간이 개입하는 주된 방식은 기억과 재현이다.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사물과 사건이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재현되는가에 따라 장소성은 달라진다. 사람이 사물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작업이 아니며, 거기에는 권력관계, 즉 기억의 정치, 재현의 정치가 작동한다. 또한 기억과 재현에는 기억할 것과 잊혀질 것을 구분하기 위한 ‘선택과 배제’ 과정이 수반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 주목하면 특정 사회 또는 집단의 정체성이나 사회적 권력관계 등을 읽어낼 수 있다.

함안의 지역정체성, 즉 함안의 로컬리티는 무엇일까? 함안의 로컬리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후손들은 함안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재현하고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함안의 로컬리티는 함안이라는 로컬(local) 공간의 다양한 양상과 속성으로 형성되는 함안의 지역성, 함안의 지역정체성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정체성[identity]의 문제는 기억[memory]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내가 ‘나’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나’가 어제의 ‘나’를 기억하는 한편 내일의 ‘나’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함안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분석한다면 함안의 지역정체성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함안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 연구에서는 <함안의 인물>, <함안의 서원>, <함안의 책판> 등에서 함안이 기억하고자 하는 상징, 인물, 장소 등을 살펴봄으로써 함안이라는 로컬이 지닌 특성, 즉 함안의 로컬리티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함안 사람들이 선조의 삶과 학문을 기억하고자 불후(不朽)하기를 소망하여 목활자로 간행한 문집을 분석함으로써 함안 로컬리티의 한 단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 1.2 연구 대상과 방법

“살아서는 7척의 몸뚱이지마는 죽어서는 겨우 관 하나 들어갈 만한 뗏자리만 있으면 족하다. 오직 덕업을 쌓아 이름을 드날리는 것으로 불후(不朽)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책을 짓는 것이 최선이다.”

중국 위(魏)나라 조조(曹操, 155-220)의 아들로 문제(文帝)가 되는 조비(曹丕, 187-226)는 인생의 덧없음을 느껴 자신이 어떻게 불후함을 실현할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저술에 많은 힘을 쏟았다고 한다.<sup>1)</sup> 조비가 책을 지어 길이 전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이 영구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도모했듯이,

우리의 선조들도 조상이 남긴 시문과 행적을 모아 문집을 편찬, 간행함으로써 조상의 이름이 길이 전해지기를 소망했다.

이 연구에서는 경남 중부지역 가운데 목활자본 문집 간행이 활발했던 함안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함안 지역에서는 누구의 삶과 학문이 불후하기를 소망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목활자본 문집이 간행되는 사회,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① 함안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는 어떠한가? ② 함안지역에서 기억하고자 하는 대표적 인물은 누구인가? ③ 함안지역 서원에서 기억하고자 향사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인가? ④ 함안지역에서 선인의 삶과 학문을 영구히 기억하고자 새겨놓은 책판에는 무엇이 있는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함안지역 목활자본 문집 간행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함안에서 간행된 목활자 문집을 대상으로 ⑤ 함안지역에서 목활자로 인출된 문집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가? ⑥ 문집의 저자는 누구이며, 성관은 무엇이며, 어느 시기에 활동했으며, 그들의 학문적·정치적 성향은 어떠한가? ⑦ 목활자본 문집은 언제 어디에서 발행되었으며, 저자 사후 몇 년 만에 발행되었으며, 인쇄자는 누구인가? 등의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함안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의 수집경위는 다음과 같다. 2001년 주요 고서 소장기관<sup>2)</sup>의 장서목록에서 간행지가 영남지역인 목활자본을 1차 선별한 후, 원문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판본이 목활자본이고 간행지가 영남인지 확인하여 <영남지역 간행 목활자본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여 <영남지방 간행 목활자본 연구>를 발표하였다.<sup>3)</sup> 그 후 여기에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경상대학교 남명학교문헌시스템, 장인진의 <영남 간행 문집 목록>,<sup>4)</sup> 한국국학진흥원의 『경남지역의 목판자료』,<sup>5)</sup>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의 『경남 서부지역의 고문헌』<sup>6)</sup> 등에 소개된 문집을 대상으로 판종이 목활자본인지, 간행지가 영남지역인지를 확인한 후 서지 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였다. 간기나 인기, 판권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저자의 세거지가 영남인지 확인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영남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서지데이터베이스>에는 문집의 유형, 서명·저자명·저자의 생몰년·성씨와 관향, 학문적 사승관계 등의 서명저자사항, 간행년·저자 사후 문집간행 소요기간·발행소(처)·인쇄자 등의 간행사항, 형태사항, 출처 등을 기술하였다.<sup>7)</sup> 이 연구에서는 <영남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서지데이터베이스> 에서 간행지가 함안으로 확인된 목활자본 문집

1) 이노우에 스스무 지음, 이동철·장원철·이정희 옮김, 『중국출판문화사』 (서울: 민음사, 2013), 66.  
2) 목활자본을 조사한 주요 고서 소장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고려대학교도서관, 동국대학교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부산대학교도서관, 연세대학교도서관, 영남대학교도서관 등이다. 이 당시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으므로 장서목록을 검토하여 영남 목활자본을 추출하였다.  
3) 송정숙, “영남지방 간행 목활자본 연구,” 『한국고학술학회 발표논문집』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3.29).  
4) 장인진, 『영남 문집의 출판과 문헌학적 양상』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1), 335-416.  
5)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 『경남지역의 목판자료』 (1), (2), (3)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8).  
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경남 서부지역의 고문헌』 I, II, III (진주: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08).  
7) 송정숙, “경남 거창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간행양상,” 『書誌學研究』 제83집(2020. 9), 8 참조.

68종을 대상으로 문집의 유형, 서명저자사항, 간행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함안 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함안지역 목활자본 문집 간행의 사회·문화적 배경

### 2.1 함안의 자연환경과 역사



<그림 1> 함안군

오늘날의 함안군은 조선시대의 함안군(咸安郡)과 칠원현(漆原縣)이 통합된 것이다.

함안은 본래 아시랑국(阿尸良國)[아나가야(阿那伽耶)라 하기도 한다]인데, 신라 법흥왕(法興王)이 멸망시키고 군(郡)으로 만들었으며, 경덕왕(景德王)이 지금 명칭으로 고쳤다. 고려 성종(成宗) 때에는 함주자사(咸州刺史)로 만들었고, 현종(顯宗)이 함안군으로 복구하여서 금주(金州, 金海)에 예속시켰다. 명종은 감무(監務)를 설치하였고, 1373년(공민왕 22) 고을 사람인 주영찬(周英贊)의 딸이 중국 명나라 궁인(宮人)이 되어 총애를 받는다고 하여 함안군으로 승격되었다.<sup>8)</sup> 조선시대에도 함안

군이 유지되었으며, 함안의 별호는 함주(咸州)·금라(金羅)·사라(沙羅)·파산(巴山) 등이다.

옛 칠원현 지역도 삼국시대 초기에 가야의 영역이었다가 신라가 세력을 확장하여 칠토현(漆吐縣)을 설치했다. 통일신라시대 경덕왕이 칠계현(漆隄縣)라고 고쳐서 의안군(義安郡)의 속현으로 만들었고, 고려초에 칠원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현종(顯宗)이 김해부에 예속시켰으며 공양왕이 감무(監務)를 두었는데, 조선초 군현제 개편에 의해 1413년(태종 13) 칠원현이 되어 조선시대 동안 유지되었다. 칠원의 별호는 구성(龜城)·무릉(武陵)이었다.<sup>9)</sup>

함안군은 <그림 1><sup>10)</sup>과 같이 가야읍·칠원읍·칠북면·칠서면·대산면·산인면·법수면·군

8) 함안군,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2권, 경상도(慶尙道) ; 한국고전번역원,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299A\\_0330\\_010\\_0030](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299A_0330_010_0030)>.  
 9) 칠원현,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2권, 경상도(慶尙道) ; 한국고전번역원,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299A\\_0330\\_010\\_0060](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299A_0330_010_0060)>.  
 10) 함안군, 다음 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24h3222b>>.

북면·함안면·여항면 등 2개읍 8개면 251개리로 구성되어 있다. 함안은 한국의 보편적인 배산임수의 지세와는 달리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아 물이 역류(逆流)하는 특이한 지세이다. 즉 남에는 여항산, 서에는 방어산, 동에는 청룡산이 솟아 있어 함안천, 서천(西川), 남강이 북으로 흐르다가 낙동강과 합류하여 북동으로 흘러간다. 그리하여 배를 타고 안동·상주·성주 등의 경상좌도 학자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진주·밀양 등과도 쉽게 왕래할 수 있었다.<sup>11)</sup>

함안은 남해·구마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경상남도 중부의 교통요지이며, 군 북쪽에 비옥한 충적 평야가 넓게 펼쳐져 도내 주요 곡창지대를 이룬다. 함안은 독과 저수지가 많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이나 옛 아라가야의 도읍지로 각종 유물과 유적도 산재해 있다.

## 2.2 함안의 인물

함안군에서 기억해야 할 <함안 인물>로 함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인물은 고려말 문신으로 경기체가 ‘관동별곡’의 저자 안축(安軸, 1282-1348), 홍건적을 물리친 고려 말의 장군 이방실(1298-1362), 전중시어사로 광주안씨 중시조인 안유(安綏), 고려말 세 번 정승을 지낸 충효공 윤환(尹桓, ?-1386), 위화도 회군을 반대한 장군 조순(趙純, ?-1398), 여말 충신 이오(李午), 청백명관 이호성(1397-1467), 용비어천가 짓는 데 참여한 어효첨(1405-1475), 생육신 조려(1420-1489), 충간으로 일생을 바친 이인형(1436-1497), 연산군에 충간으로 일생을 마친 윤석보(?-1505), 탁월한 문장력과 담력으로 외교에 성공한 문정공 어세겸(1430-1500), 연산군대의 충간(忠諫) 박한주(朴漢柱, ?-1504), 서원의 창시자 주세붕(1495-1554), 조광조 문인으로 절의의 학자 안관(安灌, 1491-1653), 은덕군자로 칭송받은 남명 문인 박제인(朴齊仁, 1536-1618),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이령(李儉, 1541-1592),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진무공신 이휴복(李休復, 1568-1624), 우국충절의 용장 박진영(1569-1641), 조선후기 학자 주재성(周宰成, 1681-1743), 일체에 항거한 애국지사 안지호(安知鎬, 1857-1921), 몽골에서 神醫라 불린 독립운동가 이태준(李泰俊, 1883-1921), 독립운동가이자 목사 손양원(孫良源, 1902-1950), 세계적인 화가 이우환(1936- )의 24인이다.<sup>12)</sup> 필자는 이 24인 가운데 고려의 인물로 국가의 명운을 살린 이방실, 조선의 인물로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오·조려·주세붕의 3인, 합 4인을 대표적인 함안 인물로 선정하였다.

### 1) 홍건적을 물리친 이방실 장군(1298-1362)

이방실은 고려 공민왕 때의 구국장군으로 함안이씨(咸安李氏)의 중시조이다. 그는 고려 충렬왕 24년(1298)에 지금의 함안군 여항면 내동에서 태어났으며, 외침에 의한 존망(存亡)의 위기에서 고려를 여러 차례 구한 맹장이다. 고려 충목왕(忠穆王)을 따라 원나라에 들어갔는데, 시종한 공로가

11) 허권수, “咸安의 人物과 學問的 傳統,” 함안문화원 편, 『함안의 인물과 학문』 (I) (함안: 함안문화원, 2010).

12) 함안인물, 함안군청 홈페이지, <<https://www.haman.go.kr/04198/04220/04291.web>>.

있어 충목왕이 즉위하자 중랑장(中郎將)에 보임되었고, 공민왕 때에는 대호군(大護軍)으로 전임되었다. 선성 달로화적(宣城達魯花赤) 노연상(魯連祥)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방실이 용주(龍州) 군사를 이끌고 가만히 강을 건너 바로 노연상의 집에 들어가서, 그 부자(父子)를 찢어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서울에 보냈다. 7년 뒤에 흥건적인 위평장(僞平章)·모거경(毛居敬) 등이 의주(義州)를 함락시키고 부사와 주(州)의 백성 천여 명을 죽이자, 이방실이 안우(安祐)·김득배(金得培)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진격하여 아홉 차례 싸운 다음 개선(凱旋)하였으므로, 추성협보공신(推誠協輔功臣)의 호를 받았다. 10년 만에 흥건적이 삭주(朔州)를 침입하자, 이방실이 도지휘사(都指揮使)가 되어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하였다. 적에게 서울이 함락되자, 이방실은 급히 진격하여 적군 20여 만을 베어 죽이니 적이 드디어 평정되었다. 김용(金鏞)은 이방실 등이 큰 공을 세워서 임금의 중하게 여길까 두려워 하여서 가짜 조서(詔書)로 이방실 등을 시켜 정세운(鄭世雲)을 죽이게 하고, 이로 인하여 죄를 얻어 죽었다.<sup>13)</sup> 서울이 함락되고 거의 대부분의 국토가 흥건적에게 빼앗겨 나라마저 잃을 시기에 외세(外勢)의 도움 없이 이를 수복구국(收復救國)하였다. 그는 고려를 지킨 4성군(四聖君)과 16공신 중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에 소재하는 숭의전(崇義殿)에 배향되어 국가에서 춘추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sup>14)</sup>

## 2) 여말 충신 모은(茅隱) 이오(李午)

이오의 호는 모은(茅隱)이고 본관은 재령(載寧)이다. 어려서부터 뜻이 크고 뛰어난 기개가 있어서 세속에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일찍이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목은(牧隱) 이색(李穡) 두 선생의 문하에 종유(從遊)하면서 의리의 학문에 독실하여 당시의 학자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다. 공양왕 때 성균관 진사시에 합격하니 포은선생께서 벼슬하기를 권고했으나 시기가 적합하지 못하다 하여 사양하였다. 고려가 망하자 여러 현인(賢人)들과 함께 송도 교외의 두문동(杜門洞)으로 들어가서 망복수의(罔僕守義)의 결의를 표명하고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함안의 모곡에 복지(卜地)를 정하여 은거하였다.

그는 자신이 끝까지 고려 유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복거지의 주위에 담을 쌓아 이 담 밖은 신왕조 조선의 영토이지만, 담 안은 고려 유민 즉 고려동(高麗洞)임을 명시하였다. 후에 조선 3대 태종이 여러 번 출사할 것을 바랬으나 끝내 나가지 않았다. 그는 아들에게 경계하기를 “너 또한 고려왕조의 유민(遺民)이니 어찌 신왕조에 벼슬할 수 있겠는가? 내가 죽은 후에라도 절대 신왕조에서 내려주는 관명은 사용하지 말고, 또 나의 신주(神主)도 이곳 고려동(高麗洞) 담안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의 유언에 따라 사후 묘비에는 글 한 자 없는 백비(白碑)를 세웠다.<sup>15)</sup>

13) 함안군,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2권, 경상도(慶尙道).

14) 이방실, 함안인물, 함안군청 홈페이지.

15) 이오, 함안인물, 함안군청 홈페이지, <<https://www.haman.go.kr/04198/04220/04297.web>>.

### 3) 생육신 어계(漁溪) 조려(趙旅, 1420-1489)

조려(趙旅)의 본관은 함안으로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에서 태어났다. 단종을 위하여 절의를 지킨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1453년(단종 1)에 진사로 성균관에서 수학하던 중 1455년에 단종이 세조에게 양위하자 성균관을 버리고 함안으로 돌아와서 서산 아래 살았는데, 후세 사람들이 서산을 백이산이라 불러 조려의 정절을 기렸다고 한다. 그는 평생 관직에 나가지 않고 시냇가에서 낚시로 여생을 보냈으며, 스스로 漁溪라 自號하였다. 단종이 유배지에서 사사당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 시신을 수렴하였다고 전한다. 1698년(숙종 24) 노산군이 단종으로 복위 되자 이조참판에 추증되고, 정조 때 貞節이라는 시호를 하사받았다. 1703년 경상도 유생 곽억령 등이 死六臣의 예에 따라 생육신도 사당을 세워 제향할 것을 건의하여 고향인 함안에 서산서원을 건립하여 조려를 배향하였다.<sup>16)</sup>

### 4) 서원의 창시자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 1495-1554)

주세붕은 자는 경유(景游), 호는 신재(愼齋), 남고(南阜), 무릉도인(武陵道人)이고, 본관은 상주(尙州)이다. 주세붕은 함천군 천곡[현 함천군 울곡면 문림리]에서 태어나 7세 때 외가가 있는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로 옮겨 살았다.

1522년(중종 17) 사마시에 합격하고, 그해 문과 별시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가 되었다. 1524년 호당(湖堂)에 선발되어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이후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541년(중종 36) 외직으로 풍기 군수로 나갔고, 이듬해 한국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창건하였다. 1549년(명종 4) 5월 호조참판으로 승진하였고, 이 해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이때도 해주에 수양서원을 창건하였다. 1550년 성균관 대사성에 제수되어 교육의 책임자가 되었다. 1552년(명종 7) 명종이 청렴하고 근면하며 덕행이 있는 사람을 뽑아 대궐로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주세붕은 이황, 이준경(李浚慶) 등 당시 명망 높은 19인과 함께 뽑혔다. 이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등으로 일하다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한국 최초의 서원지(書院志)인 『죽계지(竹溪志)』를 편찬하였고, 문집 『무릉 잡고(武陵雜稿)』 2권10책이 있다.<sup>17)</sup>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된 덕연서원에 소장되어 있던 주세붕의 영정과 유품이 현재 함안의 무산사(武山祠)에 소장되어 있다.

## 2.3 함안의 서원

서원은 선현 제향과 인재 교육을 위해 설치한 조선시대 사립 교육기관으로서 지방 유림에 의해 설립되어 학문 연구와 선현봉사(先賢奉祀) 및 향촌 자치 기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 시대 주세붕에 의해 백운동서원이 건립된 1543년(중종 38)부터 1876년(고종 13) 개항 이전까

16)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 『경남지역의 목판자료(2)』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9), 501.

17) 주세붕(周世鵬), 디지털함안문화대전.

지 경상남도 함안군에는 사액 서원 2곳과 미사액 서원 15곳 등 모두 17곳이 건립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함안의 서원<sup>18)</sup>

	서원명	소재지	제향 인물	창건 연대	비 고
1	德淵書院	칠원면 용정리 966-1	周世鵬	선조 24년(1591)	사액
2	西山書院	군북면 원북리 462	趙旅, 李孟專, 元昊 金時習, 成聃壽, 南孝溫 (생육신)	숙종 29년(1703)	사액
3	道巖書院	군북면 덕대리	裴汝慶, 趙靈得, 趙益誠, 黃後幹	숙종 5년(1679)	미사액
4	坪川書院	군북면 명관리	朴希參, 朴齊賢, 朴齊仁	숙종 15년(1689)	미사액
5	新巖書院	가야읍 신음리 1170	安灌	사우 창건(1780) 서원 승격(1784)	미사액
6	雲衢書院	가야읍 설곡리	洪載, 李午, 趙悅	정조 10년(1786)	미사액
7	德巖書院	함안면 봉성리 산60	朴漢柱, 趙純, 趙宗道	광해군 9년(1617)	미사액
8	道林書院	함안면 대사리	鄭述, 李倂, 李澣, 朴齊仁	숙종 28년(1702)	미사액
9	道溪書院	함안면 파수리 546	李瀟, 李休復, 朴震英, 趙益道	정조 4년(1780)	미사액
10	廬陽書院	여항면 외암리	李景藩, 李景茂, 安宅, 趙參, 朴昨, 李明估	사우 창건(1720) 서원 승격(1789)	미사액
11	杜陵書院	여항면 외암리 304-1	安愨, 安憲, 安信甲	순조 32년(1832)	미사액
12	松亭書院	산인면 송정리	趙任道	경종 1년(1721)	미사액
13	道南書院	대산면 대사리 220	趙瑯	철종 5년(1854)	미사액
14	鴻浦書院	칠서면 계내리 1336	尹桓, 尹子當, 尹志, 尹碩輔, 尹卓然	정조 6년(1782)	미사액
15	淸溪書院	칠서면 천계리 791	李三老, 李時積	현종 11년(1670)	미사액
16	祥鳳書院	칠원면 유원리 746	黃挾, 黃悅	숙종 22년(1696)	미사액
17	沂陽書院	칠원면 무기리 966	周世鵬, 周善元, 周珏, 周宰成, 周道復	숙종 27년(1701)	미사액

1) 덕연서원은 함안군 칠원읍 용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유림의 공의로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549년(명종 4)에 창건하였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66년(현종 7) 중건하였다. 1676년(숙종 2) '德淵'이라고 사액되었으며, 그 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다. 1911년에 덕연서당으로 재건하였으며, 1964년에 존덕사(尊德祠)를 중건 복원하였다.<sup>19)</sup> 주세붕은 1541년 5월 22일에 풍기군수로 부임하자 안향의 출생지인 죽계를 방문하고 사당을 건립하고자 작심하고 1542년에 사당을 건립하고, 1543년에 사당 앞에

18) 구산우·이정수·장성진·최정용 공저, 『경남의 서원』 (서울: 선인, 2008), 439-440 참고 ; 서원(書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19) 덕연서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서원을 세웠으니, 백운동서원이다. 후임 풍기군수인 이황의 요청으로 소수서원으로 사액되었다.<sup>20)</sup> 이렇게 주세붕에 의해 우리나라에 서원이 시작되었다.

2) 서산서원은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도 유학(幼學) 괘억령(郭億齡) 등이 생육신(生六臣)인 조려(趙旅, 1420-1489), 김시습(金時習, 1435-1493), 이맹전(李孟專, 1392-1480), 원호(元昊), 성담수(成聃壽), 남효온(南孝溫, 1454-1492) 등을 사육신(死六臣)의 예에 따라 병향(并享)해야 마땅함을 상소하여 윤허를 받아 1703년(숙종 29)에 창건하였다. 1712년(숙종 39)에 ‘西山’이라는 현판이 내려지면서 사액서원(賜額書院)이 되었으나 1868년(고종 5)에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리면서 훼손된 후 1981년에 복원을 착수하여 1984년에 완공하였다.

3) 도암서원은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에 있으며, 배여경(裴汝慶, 1622-1696), 조영득(趙靈得, 1666-1736), 조익성(趙益誠), 밀암 이재의 문인인 황후간(黃後幹, 1700-1773)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1679년(숙종 5)에 창건되었다가, 1868년(고종 5)에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리면서 훼손되었다. 이후 1940년 겨울에 후손들이 도암서원 일부를 복원하여 도암서당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분성 배씨(盆城裴氏)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4) 평천서원은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에 있었으며, 경주박씨 박희삼(朴希參, 1486-1570)을 주벽(主壁)으로, 두 아들인 박제현(朴齊賢, 1521-1575), 박제인(朴齊仁, 1536-1618)을 배향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1868년(고종 5)에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훼손되었으며, 평천서원 유허비(坪川書院遺墟碑)가 1915년 중건된 경주박씨 재실인 추모재(追慕齋) 맞은편에 건립되었다. 박희삼은 1547년(명종 2)에 천거되어 덕릉 참봉(德陵參奉)과 건원릉 참봉(健元陵參奉)을 지냈는데, 어머니 봉양을 이유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부모상을 당하여 6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는데, 정구(鄭述)가 박희삼의 효성을 칭찬하였다. 남명 조식(曹植, 1501-1572)과 가장 친하였는데, 두 아들인 박제현, 박제인을 조식에게 배우게 하였다. 사림의 공의(公議)로 평천서원에 제향하였다.<sup>21)</sup>

5) 신암서원은 함안군 가야읍 신음리에 있으며, 안관(安灌, 1491-1553)의 학덕을 기리기 위하여 1780년(정조 4)에 영남 사림에 의해 사(祠)와 서원 강당이 건립되었고, 1784년(정조 8)에 서원으로 승격하였다. 1823년(순조 23)에 강당을 이건하고, 1850년(철종 원년) 중건했지만 1868년(고종 5)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 한동안 복원하지 못하다가 함안 지역의 유림과 후손의 지원으로 1993년 10월에 복원되었다.

안관은 함안 출신으로,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자 크게 동탄하고 벼슬길을 멀리하였다. 1519년(중종 14)의 기묘사화(己卯士禍)와 1521년(중종 16)의 신사무옥(辛巳誣獄)이 발생하자 1523년(중종 18)에 함안의 여항산(餘航山)에 은거하였다. 학문 탐구와 후진 양성에 힘썼으며, 많은 저서를 남겼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sup>22)</sup>

20) 송정숙, “『紹修書院 入院錄』 분석: 16·17세기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제34집(2006. 9), 70-71.

21) 평천서원(坪川書院), 디지털함안문화대전.

22) 신암서원, 디지털함안문화대전.

6) 운구서원은 함안군 가야읍 설곡리에 있었으며, 1786년에 유림의 건의에 의하여 운구대 곁에 운구서원(雲衢書院)을 창건하기 시작하여 1796년(정조 20)에 홍재(洪載), 이오(李午), 조열(趙悅)을 봉안하였다. 1833년(순조 33)에 한 차례 중수를 하였으나, 1868년(고종 5)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손되었다.

7) 덕암서원은 함안군 함안면 봉성리에 있었으며, 조선 중기 지방유림의 공의로 조순(趙純)·박한주(朴漢柱)·조종도(趙宗道)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9년(고종 6)에 훼손된 뒤 복원되지 못하고 유허비만 남아 있다.

8) 도림서원은 함안군 함안면 대신리에 있었으며, 1672년(현종 13) 지방유림의 공의로 정구(鄭逵)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그 뒤 이용(李涌)·박제인(朴齊仁)·이정(李澣)을 추가 배향하였다. 1869년(고종 6)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어 지금까지 복원하지 못하였으며, 경내에는 유허비(遺墟碑)만 남아 있다.

9) 도계서원은 함안군 함안면 파수리 원촌동에 있었으며, 이숙(李瀟, 1550-1615), 이휴복(李休復, 1568-1624), 박진영(朴震英, 1569-1641), 조익도(趙益道, 1585-1624) 등 4명의 공신의 행적을 기리기 위하여 1780년(정조 4) 건립된 서원이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혁파된 후 복원되지 못하였다.

이숙은 함안 출생으로, 호는 갈촌(葛村)이다. 선조(宣祖) 때 무과(武科)에 급제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왜적의 격퇴에 공을 세웠다. 이휴복은 조선 중기 무신으로, 호는 양졸정(養拙亭)이다. 임진왜란 때 곽재우(郭再祐, 1552-1617)와 의병을 일으켰다. 인조(仁祖) 시기 관군 별장(別將)으로 이괄(李适)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 진무공신(振武功臣) 3등에 녹훈(錄勳)되었다. 박진영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호는 광서(厓西)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집하여 왜적과 싸웠으며, 그 공적으로 용궁 현감(龍宮縣監)이 되었다. 인조 때 이괄의 난을 진압하는 토벌군으로 참전하였다. 조익도는 무과에 급제하였고, 이괄의 난 때 진압에 참여했다가 세상을 떠났다. 조정에서는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봉하였다.

10) 여양서원은 함안군 여항면 외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숙종 때 이경번·이경무를 향사하는 여양사(廬陽祠)로 창건된 후 정조 때 서원으로 승격되어 안택(安宅)을 함께 향사하였다. 고종 때 서원 훼손령으로 훼손된 후 복원되지 못하였다.

11) 두릉서원(杜陵書院)은 함안군 여항면 외암리에 있으며,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우고 김해에서 전사한 안민(安愍, 1539-1592), 안민의 아우로 문과에 급제하여 대구부사(大邱府使)를 지냈으며,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안희(安熹, 1551-1613), 정유재란 때 산청 환아정(換鵝亭) 전투에서 사절(死絶)한 안신갑(安信甲, 1564-1597)을 배향하기 위하여 창건되었다. 처음에는 경상북도 순흥[현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의 용연서원(龍淵書院)에서 안민을 향사하고 있었으나 1832년에 묘소가 있는 두릉에 사원(祠院)을 지어 옮겨 향사하게 되었다. 1868년(고종 5)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가, 1930년 후손들이 그 옛 터에 서당으로 중건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1984년

후손들이 다시 세운 것이다.

12) 송정서원은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에 있었으며, 1721년(경종 1)에 함안 출신인 조임도(趙任道, 1585-1664)를 제향하기 위하여 도내의 사림들이 임금에게 상소하여 윤허를 얻어 건립된 서원이다. 1868년(고종 5) 흥선 대홍군(興宣大院君)이 전국에 서원 철폐령을 내릴 때 훼손되었으며, 그 자리에 “삼조징사 간송 조선생 건원지허(三朝徵士澗松趙先生建院之墟)”란 표지석이 서 있다. 어계 조려(趙旅)의 5대손인 조임도는 학문이 뛰어나고 효심이 지극하여 백효(伯孝)라고 불렸다. 1611년(광해군 3)에 정인홍(鄭仁弘)이 이황(李滉), 이언적(李彦迪)을 문묘에 종사(從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자 정인홍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린 후 함안군 칠원에 은거했다. 1623년(광해군 15) 인조반정(仁祖反正) 후에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여러 번 불렸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sup>23)</sup>

13) 도남서원은 함안군 대산면 대사리에 있으며, 조방(趙瑋, 1557-1638)의 행적을 추모하여 1854년(철종 5)에 창건되었다. 조방은 조선 중기 학자로 임진왜란 때에 의병으로 참여하여 전공을 많이 세웠다. 충과 효를 일생의 신조로 삼았다. 서원이 창건된 지 14년 후인 1868년(고종 5)에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가 그 후 일제 강점기로 추정되는 시기에 서당으로 재건되었다. 그 후 1950년 6·25 전쟁으로 소실되었다가 1953년에 복원되었다.

14) 홍포서원은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에 있으며, 1782년(정조 6)에 충효공(忠孝公) 윤환(尹桓)·정평공(靖平公) 윤자당(尹子當, ?-1422)·양성당(養性堂) 윤지(尹志)·지퇴당(止退堂) 윤석보(尹碩輔)·헌민공(憲敏公) 윤탁연(尹卓然) 등 칠원윤씨 다섯 선조의 행적을 추모하고자 창건되었다.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혁파된 후 1980년에 복원하였다.

15) 청계서원은 함안군 칠서면 청계리에 있으며,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장수이씨 이삼로(李三老, 1560-1645)와 이삼로의 조카인 이시분(李時醜)의 충정과 행적을 추모하기 위하여 1670년(현종 11)에 창건되었다. 1868년에 서원 철폐령으로 혁파된 후 1981년에 재건되었다.

16) 상봉서원은 함안군 칠원읍 유원리에 있으며, 창원황씨 독오당(獨梧堂) 황협(黃俠, 1606-1686), 황협의 아우인 퇴휴당(退休堂) 황열(黃悅, 1616-1681) 등 8현(賢)을 기리기 위하여 1696년(숙종 22)에 설립되었다. 1868년(고종 5)에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손되자 용산서당(龍山書堂)을 건립하여 석채례(釋菜禮)를 지냈다. 일제 강점기인 1935년에는 용산사(龍山祠) 옛터에 상봉서당(祥鳳書堂)을 중건하여 석채례를 속행하였다. 광복 후인 1984년 사림과 후손의 협의로 서원으로 승격하고, 1985년에는 용산사를 복원하여 황협과 황열을 추향하게 되었다.<sup>24)</sup>

17) 기양서원은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에 있으며, 주세곤(周世鵬)·주선원(周善元)·주각(周珏)·주재성(周宰成)·주도복(周道復)의 행적을 기리기 위하여 숙종 때 창건되었으며, 1868년(고종 5)에 훼손되었다가 1971년에 충효사(忠孝祠)가 중건되었다. 1701년(숙종 27)에 주세곤(周世鵬)과 주선원

23) 송정서원, 디지털함안문화대전.

24) 상봉서원, 디지털함안문화대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49604&cid=59699&categoryId=59724>>.

(周善元, 1580-1638)의 위패를 모시고, 후일 주각(周珏, 1646-1710), 주재성(周宰成, 1681-1743), 주도복(周道復, 1709-1784)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기양서원의 주향인 주세곤은 주문보(周文甫)의 장남이자 주세봉(周世鵬)의 백형이다. 평생 학문에 전념하여 경사에 박통하였으며, 무예를 닦아 중종조에 무관으로 수의위교위(修義衛校尉)가 되었다. 주선원은 주세곤의 증손으로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학식이 깊고 덕행이 독실하여 장현광으로부터 ‘청음군자(淸陰君子)’라는 칭송을 받았다. 주각은 주선원의 손자로 지극한 효행이 조정에 알려져 통선량 사헌부지평에 증직되었다. 국담(菊潭) 주재성은 주각의 아들이고, 주도복은 주재성의 장자로 아버지가 의병을 일으켜 이인좌의 난을 토벌할 때 아버지를 따라 출진하였다.

함안지역에서 삶과 학문을 본받고자 서원에 향사하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인구서원의 이오나 서산서원의 조려나 신암서원의 안관처럼 절의의 삶을 산 인물, 도림서원의 정구나 덕연서원의 주세봉처럼 지방관으로 지방의 인재교육에 힘썼던 인물, 도계서원의 이숙·박진영이나 두릉서원의 안민·안희·안신갑이나 도남서원의 조방처럼 국가 위기시에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인물들이다. 이들의 학문적, 정치적 지향을 보면, 함안군수로 와서 『함주지』를 편찬하고 지역의 학문을 부흥시켰던 도림서원의 한강 정구는 퇴계 이황의 학통을 잇는 제자이고, 덕연서원의 주세봉은 퇴계 이황의 벗이었다. 한편 평천서원의 박희삼은 남명 조식의 벗이었고, 아들 박제현과 박제인은 남명 조식의 문인이었다. 이처럼 함안에 남명의 학문적 전통을 중시하며 정치적으로 북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흐름이 있었음에도 조임도는 이황과 이언적의 문묘중사를 반대하는 정인홍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러한 조임도의 입장과 노력으로 함안지역은 인조반정 이후 정인홍의 북인이 정계에서 추출되고 학문도 침체되는 상황에서 학문의 쇠락을 다소 면할 수 있었다. 도암서원의 황후간은 밀암 이재의 문인으로 운구서원 이오의 후손들과 함께 이황의 학설을 옹호하고 율곡 이이를 비판했던 갈암 이현일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로써 조선후기 함안의 학문적 주류가 퇴계의 학문적 전통을 존중하는 영남 학파로서 정치적으로는 남인의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 2.4 함안지역의 문집 책판

경남지역의 목판자료를 조사한 한국국학진흥원의 기초학문육성사업단에 의하면, “함안지방의 현존 목판을 조사하면서, 특히 이 지역은 분실, 소실된 목판들이 타 지역에 비하여 유독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함안지방이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지 중의 한 곳으로 전쟁의 피해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을 함안군 현 산림조합장 李秉茂(本 載寧)의 증언을 통하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李 조합장에 의하면, 한국전쟁 당시 함안지방은 낙동강 전선에서 공방전이 가장 치열했던 전선 중 한 곳으로, 북한군의 馬山 방면 진출을 저지하려는 美8軍과, 진주를 거쳐 함안으로 진출한 북한군 제6사단이 전면전을 펼쳤던 곳이라 하였다. 당시 미군은 북한군의 보급선이 길게

늘어진 점에 착안하여, 북한군의 보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받을 수 있는 민가를 파괴하는 작전을 펼쳤다. 이에 함안읍을 중심으로 한 외곽 지역이 초토화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목판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들이 함께 소실되었다고 하였다. 어느 정도의 격전이 벌어졌는가는 당시 함안군의 중심지였던 함안읍이 전쟁 이후 읍치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고, 이에 전쟁 이후 함안군의 읍치가 현재의 가야읍으로 옮기게 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25)</sup>고 한다.

함안지역 간행 목판본 문집 가운데 판목이 소실된 문집은 안정(安挺, 1574-1636)의 『道谷集』 등 23종으로 파악되었고, 박진영(朴震英)의 『匡西先生文集』 등 4종의 책판은 진주박물관에 기탁·보관되어 있다.<sup>26)</sup>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재 함안에 소장되어 있는 문집의 책판을 소장처별로 보면, 다음 <표 2><sup>27)</sup>와 같다.

<표 2> 함안에 소장된 문집 책판

	소장자(처)	책판명	저자(생몰년)	장	비고
1	慶州朴氏 著作公派 (追慕齋)	松岳先生文集	朴齊賢(1521-1575)	27	
		篁崑先生文集	朴齊仁(1536-1618)	38	
		農隱先生文集	朴道元(1593-1648)	15	경상대에 기탁
2	尙州周氏 武陵門中 武山祠	武陵雜稿	周世鵬(1495-1554)	352	
		龜峯先生遺集	周博(1524-1588)	35	
		守口齋先生文集	周孟獻(1617-1703)	65	
3	載寧李氏 <sup>28)</sup> 芋山門中	芋山先生文集	李熏浩(1859-1932)	193	
4	咸安趙氏 漁溪宗家 (西山書院)	琴隱先生實記	趙悅(생몰년 미상)	29	한국국학진흥원 보관
		損庵集	趙根(1631-1690)	154	한국국학진흥원 보관
		漁溪先生文集	趙旅(1420-1489)	58	한국국학진흥원 보관
5	함안박물관	謹齋先生集	安軸(1282-1347)	48	순흥안씨문중
		三先生世稿	安宗源(1325-1394) 安純(1371-1440) 安崇善(1392-1452)	20	순흥안씨문중
		澗松先生文集	趙任道(1585-1664)	124	함안조씨문중
		澗松先生別集	趙任道(1585-1664)	44	함안조씨문중
		澗松先生續集跋	趙任道(1585-1664)	1	함안조씨문중
		奉先抄儀	趙任道(1585-1664)	10	함안조씨문중
		追慕錄	趙任道(1585-1664)	28	함안조씨문중
		晚默堂先生文集	李景茂(1609-1679)	34	여주이씨문중
		晚默堂續集	李景茂(1609-1679)	11	여주이씨문중
菊潭先生文集	周宰成(1681-1743)	55	상주주씨문중		

25)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2009), 421-422.

26)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2009), 422-423 참고.

27) 여기에서는 문집의 책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문집 이외의 책판은 제외하였다.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2009), 425-503 참고.

28) 재령이씨 문중 학자들의 목판도 20세기 초반까지 잘 남아 있었다고 한다. 종손의 증언에 의하면, 1930년대 중반에

1)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에 있는 慶州朴氏 著作公派의 재실인 추모재의 장관각에 朴齊賢(1521-1575)의 『松岳先生文集』, 朴齊仁(1536-1618)의 『篁岳先生文集』, 朴道元(1593-1648)의 『農隱先生文集』의 책판이 소장되어 있다. 朴齊賢(1521-1575)과 朴齊仁(1536-1618)은 형제로서 남명 조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顔子の 四勿과 朱子の 十訓을 병풍에 써 놓고 자신의 할 일로 삼았으며, 『효경』을 특히 중시해 孝를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松岳先生文集』은 박제현의 기록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없어진 것을 후손 박영일이 자료를 찾고, 후손 박규환이 이를 수합하여 1891년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박제현은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사후에 함안의 도립서원에 배향되었다. 황암 박제현의 손자인 朴道元(1593-1648)은 여현 장현광의 문인으로 한몽삼·조임도 등과 교류하였으며, 평생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만 정진하였다.<sup>29)</sup>

2)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에 있는 尙州周氏 武陵門中 武山祠 내의 유물전시관에 周世鵬(1495-1554)의 시문집인 『武陵雜稿』, 주세봉의 아들인 周博(1524-1588)의 『龜峯先生遺集』, 周孟獻(1617-1703)의 『守口齋先生文集』의 책판이 소장되어 있다. 함안군 칠원에서 출생한 주세봉은 1522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그해 11월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1541년에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백운동서원을 세웠으며, 1549년에 황해도관찰사로 부임하여 해주에 수양서원을 건립하였다. 周世鵬의 문집인 『武陵雜稿』는 주세봉의 아들 주박이 경북 영덕군수로 재직 당시인 1564년에 영덕에서 초간되었고, 주박이 永川군수로 재직 당시인 1581년에 영천에서 중간되었다. 임진왜란으로 서적과 관목이 유실되자 덕연서원에서 1859년(철종 10)에 목판으로 판각하여 인출되었다. 周博(1524-1588)은 퇴계 이황의 문인으로 명종 13년에 생원, 진사 양시에서 장원을 했으며, 1568년에 문과 급제하였다. 문명이 있어 선조 초에 춘추관 기사관이 되어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월천 조목·대소헌 조종도·황곡 이칭 등과 교류하였다. 조호익 형제 등이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周孟獻(1617-1703)은 허목, 조임도의 문하에서 공부하였고, 스스로 『퇴계선생문집』의 요체만 옮겨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책상 위에 두고 따르고자 하였고, 과거 공부에는 힘쓰지 않았다. 임란으로 허물어진 주세봉을 향사하는 서원을 증건하여 1676년(숙종2)에 ‘德淵’으로 사액받았다.<sup>30)</sup>

3)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에 있는 載寧李氏 芋山門中에서 우산(芋山) 이훈호(李熏浩, 1859-1932)의 『芋山先生文集』의 책판을 소장하고 있다. 이훈호는 許傳을 사숙하였으며, 향시에 응시하려 갔다가 과거제도가 문란한 것을 보고, 과거 공부보다는 爲己之學에 전념하였다. 일찍이 곽종석을 배알하자 기뻐하면서 “그대의 명성을 들은 지 오래인데 만나보기가 늦었다. 내가 그대의 글을 보니 모두가 古文의 체제로 내가 미칠 바가 아니다”고 하였다. 1925년 진주에서 윤희의 『白湖集』을 교정하였다. 『芋山先生文集』 9권5책은 1934년 사갈사당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sup>31)</sup>

목판을 보관하고 있던 종가의 창고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소장 목판이 전부 소실되었다. 다행히 『芋山先生文集』은 우산선생의 후손가에 보관하고 있어서 소실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2009), 427.

29)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2009), 430-435.

30)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 437-446.

4)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에 있는 咸安趙氏 漁溪宗家の 西山書院에서 趙悅(생몰년 미상)의 『琴隱先生實記』, 조려(趙旅, 1420-1489)의 『漁溪先生文集』, 趙根(1631-1690)의 『損庵集』 책판을 소장하고 있었다. 琴隱 조열은 고려 공민왕 때 공조전서를 지냈으며 조선이 개국하자 관직에 나가지 않고 절개를 지킨 인물이다. 1394년 이성계가 공양왕을 죽이자 직접 공양왕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지내고 3년 복을 입었다. 태조가 출사할 것을 중용하자 마지못해 한양에는 올라갔지만 태조의 彈琴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전한다. 생육신의 한 사람인 趙旅의 『漁溪先生文集』은 1516년 손자 조적 형제에 의해 1차로 간행되었고, 9세손 조영석이 자료를 수집하여 1742년에 재간하였다. 1901년에 생육신의 사실을 추가로 모아 속집으로 편차하였는데, 어계선생속집을 따로 독립시키지 않고 권3으로 편차하여 간행하였다. 손암 조근(趙根, 1631-1690)은 우암 송시열의 문인으로 1650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662년에 여러 유생들을 대표하여 율곡 이이, 우계 성혼의 문묘 종사를 상소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1666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1676년에 許積의 종사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문집인 『損庵集』은 8권4책으로 1749년에 간행되었다.

이 세 문집 책판은 본래 서산서원에 소장되어 있었으나 도난의 위험 등으로 함안박물관에 기탁·보관을 의뢰하였다. 함안박물관에서는 한시적으로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하여 현재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장판각에 보관되어 있다.

5)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함안박물관에는 함안의 순흥안씨문중, 함안조씨문중, 여주이씨문중에서 소장하던 문집의 책판을 위탁 보관하고 있다. 순흥안씨문중에서 위탁한 문집의 책판은 안축(安軸, 1282-1347)의 『謹齋先生集』과 安宗源(1325-1394)·安純(1371-1440)·安崇善(1392-1452) 3인의 합집인 『三先生世稿』이다. 안축은 순흥 죽계(지금의 풍기)의 향리층에서 상경종사한 신흥사 대부로 과거 급제한 이후 1324년 원나라 제과에도 급제하였다. 충렬·충선·충숙왕의 3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경기체가인 <관동별곡>과 <죽계별곡>을 지었으며, 興寧君에 봉해진 뒤 세상을 떠났다. 순흥의 소수서원에 제향되었고, 시호는 문정이다. 안축의 『근재선생집』은 1364년에 정량생에 의해 초간되었고, 1445년 후손 안송선이 재간하였고, 1740년 선조 4대의 유고 및 『三先生世稿』를 합쳐 제주에서 3차로 간행하였다. 1910년에 후손 안유상 등이 『三先生世稿』를 삭제하고 대신 동생인 安輔의 시문을 추가하고, 이황이 작성한 世系圖를 붙여 4권2책으로 改刊하였다. 『三先生世稿』는 안축의 아들 안중원과 안중원의 손자 안순, 안순의 아들 안송선의 3인의 합집으로 1740년 간행된 『謹齋先生集』의 말미에 부록으로 첨부되어 간행되었으나, 1910년에 독립된 책으로 간행되었다.

함안의 함안조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책판은 간송 조임도(趙任道, 1585-1664)의 문집인 『澗松先生文集』과 『澗松先生別集』이다. 간송 조임도는 고응척, 장현광 등에게 학문을 배웠다. 『간송선생문집』은 간송의 현손 조홍엽이 가장 초고를 수집 편정한 후, 1774년 겨울에 李光庭의 서문을 받아 원집 5권, 별집 2권으로 편정하고, 양천익이 편차한 연보 1권을 합쳐 8권4책의 정고본을 완성하여 간행하였다. 『澗松先生別集』 2권1책은 1744년에 간행되었다.

31)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 453

함안의 여주이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책판은 李景茂(1609-1679)의 문집인 『晚默堂先生文集』과 『晚默堂續集』이다. 이경무는 외조부 復齋 李道孜에게 수학하였는데, 효성이 뛰어났고 경전에 침잠하여 의리를 강구하였으며, 평생 『심경』과 『근사록』의 가르침을 행하고자 하였다. 1876년 호행으로 나라에서 정려를 내렸다. 『晚默堂先生文集』 2권1책은 1836년에 宋穉圭의 서문을 받아 1839년에 목판으로 간행되었고, 『晚默堂續集』 1권1책은 推本齋에서 1921년에 목판으로 중간되었다.

함안의 상주주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책판은 주재성(周宰成, 1681-1743)의 『菊潭先生文集』이다. 주재성은 주세붕의 후손으로 어려서부터 『근사록』과 『주자대전』을 탐독하였다. 주재성은 1728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가산을 팔아 군량미를 지원하고, 의병을 일으켜 영호의 요새인 분치령을 방어하였다. 1788년 기양서원의 제향되었다. 『菊潭先生文集』 부록의 <倡義事蹟>은 자신의 일기에 근거하여 무신난 당시의 상황을 정리한 내용으로 무신난의 진행과정과 난의 진압에 참여한 인물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菊潭先生文集』 2권2책은 張錫英의 서문을 받아 1908년에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책판은 종가에서 함안박물관에 기탁·보관 중이다.

### 3. 함안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 경향 분석

#### 3.1 문집의 유형 분석

경남 함안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68종을 문집, 유집, 실기로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함안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의 유형 분석

구분		종수	%	문집명	
문집 (文集)	별집	시문	39	57.4	潤松先生續集, 剛齋集, 儉溪集, 廣川集, 龜陰集, 菊庵集, 芹村文集, 錦溪文集, 琴溪集, 杞岡文集, 龔替先生文集, 龔窩集, 德菴文集, 道峰先生文集, 陶川先生文集, 挑園文集, 獨梧先生文集, 斗巖公文集, 晚最先生文集, 梅竹軒先生文集, 梅軒先生文集, 勉堂文集, 三畏齋文集, 稜山先生文集, 西川先生文集, 雙峯集, 養拙亭集, 雲隱先生文集, 雲樵集, 夷溪處士文集, 夷南文集, 夷峰先生文集, 一山先生文集, 竹溪先生文集, 醉石堂集, 恒齋先生文集, 篁谷先生文集, 晦山先生文集, 梅叟文集
		시	1	1.5	石南詩集
	합집	시문	1	1.5	茅菴松溪合稿
유집 (遺集)	별집	16	23.5	廣棧李公遺集, 龜川遺集, 乃翁遺稿, 龔溪處士遺稿, 訥窩遺稿, 道窩逸稿, 晚棲遺稿, 明窩遺稿, 芙岡遺稿, 四吾堂先生逸集, 三便齋遺集, 雙梅堂遺集, 玉峰先生逸稿, 殷溪先生遺集, 紫巖遺稿, 玄圃逸稿	
	합집				
실기 (實記)	별집	11	16.2	葛村先生實紀, 溪隱實紀, 孤山先生實紀, 龜軒實記, 農窩實記, 德恩監實記, 防隱實記, 北溪實紀, 四時堂實記, 蘇窩實記, 聚友亭先生實記	
	합집				
계		68	100		

함안지방은 많은 토착 인물의 학자들이 배출되었고, 특히 조선 후기 이후 중앙 정계의 분화에 따라 이 지역으로 낙향하여 세거한 인물들이 많았던 지역이었다. 이에 김종직과 조식의 학문적 영향을 받은 것은 물론 정암 조광조, 한훤당 김굉필을 비롯하여 퇴계 이황, 한강 정구, 여헌 장현광 등의 학문적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은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자, 이들의 학문적 결과를 담고 있는 문집의 간행도 비교적 많았던 지역이다.<sup>32)</sup>

경남 함안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68종의 유형을 보면, 문집은 41종(60.3%), 유집은 16종(23.5%), 실기는 11종(16.2%)이다. 전체 68종의 문집 가운데 1인의 시문집인 별집은 67종(98.5%)이고, 2인 이상의 시문집인 합집은 1종(1.5%)으로서 『모암송계합고(茅菴松溪合稿)』가 유일하다. 『모암송계합고』는 조선 중기 함안 광평리에서 태어난 경주박씨 박희삼의 『모암집』과 손자 박이의 『송계집』을 합고한 것이다. 모암(茅菴) 박희삼(朴希參, 1486-1570)은 남명(南冥) 조식(曹植)과 중유하였고, 두 아들 박제현(朴齊賢)과 박제인(朴齊仁)은 조식의 문인이다. 박희삼의 손자이며 박제현의 아들인 송계(松溪) 박이(朴珪, 1541-1585)는 서암(棲巖) 정지린(鄭之麟)에게 배웠다. 『모암송계합고(茅菴松溪合稿)』는 박희삼의 12세손 박규환(朴圭煥, 1840-1923)이 유문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간행하였다. 발문이 언제 씌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간행연도를 알 수 없지만, 정재규(鄭載圭)가 지은 박이의 묘갈명(墓碣銘)이 1909년에 완성된 것으로 보아 합고(合稿)가 간행되었던 때는 1909년 이후부터 1923년 박규환이 세상을 떠나기 전으로 추정된다.<sup>33)</sup>

전체 68종 가운데 67종은 운문인 시(詩)와 산문인 문(文)으로 구성된 반면에 시로만 구성된 시집은 김진두의 『석남시집(石南詩集)』이 유일하다.

함안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68종 가운데 유집은 16종인데, 『농계처사유고』<sup>34)</sup>의 서문과 발문을 통해 유집을 간행하게 되는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 “공(농계)은 일찍 예천군 금당리에 우거하고 있었는데, 집필한 많은 문적을 사위되는 정씨가문에 모두 맡겨두어, 그것을 찾아오기 전에 훗날 병란으로 모두 불에 타서 없어졌다.”<sup>35)</sup> “농계(農溪)처사가 세상을 떠난 지가 근 이백년이 가까운데, 남긴 글들이 후세에 전하여 지지 않으니, 조상의 글이 담긴 그 근원을 찾아서 선비의 가문을 탐문하여, 문집에 한 줄이라도 공의 글이 실려 있으면 거리까지 않고 모두 수습하여 한 편의 원고를 이루고, 또 여러 선비들이 지은 행장, 묘갈명, 만시, 제문 등을 첨가한 부록을 합쳐서 한 책을 이루어 처음으로 문집을 간행하였다.”<sup>36)</sup> 이에서 보듯이, ○○遺集, ○○逸集, ○○遺稿, ○○逸稿 등으로 명명되는 유집은 저자 사후 원고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의 문집이나 금석문 등에 실려 있는 저자의 글을 수습하고, 저자에 대해 타인이 지은 전기자료, 즉 행장·묘갈명·만시·제문 등은 부록으로 책의 말미에 편차하여 간행한 것이다.

32)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 『경남지역의 목판자료(2)』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9), 418.

33) 『茅菴松溪合稿』, 디지털함안문화대전.

34) 『농계처사유고』, <<http://blog.daum.net/angle2282/3841734>>

35) 조원규, “농계처사유고서”, 『농계처사유고』.

36) 조성용, “농계처사유고발”, 『농계처사유고』.

함안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68종 가운데 실기는 11종인데, 저자가 별세한 후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후 전하는 저자의 글이 아주 적은 경우에 부록에 전기자료를 편철하여 ‘실기’라고 명명하였다. 그 예로 李瀟(1550-1615)의 『葛村先生實紀』를 들 수 있다. 모은 이오의 5세손인 갈촌 이숙은 1576년에 무과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중형 茅村 李澣과 함께 성리학을 공부하다가 한강 鄭述가 함안군수로 부임해오자 나아가 배웠다. 임란이 일어나자 창의하여 경상감사 金暉와 곽재우를 강화시키고 초유사 金誠一의 명으로 영산(靈山)을 수비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함천군수로 정기룡과 함께 적을 토벌하였다. 『葛村先生實紀』 3권1책의 목차를 보면, 권1은 이숙이 지은 시 3수이고, 권2는 부록으로 錄宣武原從二等功臣 敎書, 挽詞, 遺事, 行狀 등 전기자료로 타인이 이숙을 추모하여 지은 글이며, 권3도 부록으로 道溪書院奉安文이나 道溪書院常享文, 道溪書院重修上梁文 등 이숙을 향사하는 도계서원 관련 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기묘년(1939)에 鄭宗鎬의 서문을 받아 저자 사후 331년만인 병술년(1946)에 琴湖亭에서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 3.2 문집의 저자사항 분석

#### 3.2.1 문집 저자의 출생연도 분석

경남 함안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저자들이 어느 시대에 활동한 인물인지 알아보기 위해 저자의 출생연도를 조사하였다. 문집 저자의 출생연도가 소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집 부록의 행장을 통해 출생연도를 파악하였으나, 부록이 없는 경우에는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함안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68종의 저자(37)의 출생연도를 분석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함안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저자의 출생연도

출생연도	인원	저자(출생년, 서명)
1400-1449	5	1 李仁亨(1436, 梅軒先生文集)
1450-1499		4 趙舜(1467, 玉峰先生逸稿), 趙壽千(1482, 北溪實紀), 朴希參(1486, 茅菴松溪合稿), 安灌(1491, 聚友亭先生實記)
1500-1549	14	3 金銑(1503, 四時堂實記), 李侁(1535, 篁谷先生文集), 李佶(1538, 儉溪先生文集)
1550-1599		11 李瀟(1550, 葛村先生集), 安憲(1551, 竹溪先生文集), 趙邴(1557, 斗巖公文集), 羅翼南(1558, 菊庵集), 李三老(1560, 孤山先生實紀), 李明忠(1565, 梅竹軒先生文集), 金彥秀(1568, 龜軒實記), 李休復(1568, 養拙亭集), 趙任道(1585, 澗松先生續集), 李時頤(1588, 雲隱先生文集), 陳健(1598, 明窩遺稿)
1600-1649	9	4 文學庸(1604, 防隱實記), 黃煥(1606, 獨梧先生文集), 趙徵天(1609, 道峰先生文集), 裴良玉(1622, 四吾堂先生逸集)
1650-1699		5 趙景斌(1659, 芹村文集), 黃道翼(1678, 夷溪處士文集), 安國章(1685, 殷溪先生遺集), 黃孝昌(1687, 恒齋先生文集), 黃朴又(1690, 龔瞽先生文集)

37) 합집인 경우 제 1저자 1인으로 계산하였다.

출생연도	인원		저자(출생년, 서명)
1700-1749	9	4	黃後幹(1700, 夷峰先生文集), 安慶稷(1721, 雙梅堂遺集), 安慶一(1724, 壘窩集), 安致權(1745, 乃翁遺稿)
1750-1799		5	趙昌鉉(1763, 壘窩處士遺稿), 鄭再玄(1765, 剛齋集), 李潤龍(1776, 三便齋遺集), 安英重(1797, 訥窩遺稿), 黃正基(1799, 挑圃文集)
1800-1849	29	12	安宅柱(1805, 道窩逸稿), 李有星(1808, 廣棲李公遺集), 李尙斗(1814, 雙峯集), 趙性源(1838, 紫巖遺稿), 李敏植(1838, 悔叟文集), 朴圭煥(1840, 夷南文集), 周時成(1843, 溪隱實紀), 趙性恂(1844, 醉石堂集), 趙性胤(1845, 廣川集), 趙昞奎(1846, 一山先生文集), 趙錫濟(1848, 錦溪文集), 安秉遠(1848, 蘇窩實記)
1850-1899		17	安規遠(1851, 美岡遺稿), 郭益守(1852, 玄圃逸稿), 趙貞奎(1853, 西川先生文集), 黃熙壽(1855, 德菴文集), 安有商(1857, 陶川先生文集), 李珩基(1860, 杞岡文集), 趙麟奎(1860, 雲樵集), 李泰文(1861, 晚最先生文集), 安冀遠(1863, 龜陰集), 權命熙(1865, 三畏齋文集), 李正浩(1865, 棲山先生文集), 金丙一(1867, 農窩實記), 安鼎呂(1871, 晦山先生文集), 金昌稷(1872, 龜川遺集), 安達中(1876, 勉堂集), 李鎰浩(1884, 晚棲遺稿), 趙祐植(1893, 琴溪集)
미상	2		金振斗(?), 石南詩集), 李種(?), 德恩監實記),
	68		

함안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68종의 저자 가운데 출생연도가 파악된 저자 66인의 출생연도를 분석해 보면, 저자 66인은 모두 조선 시대에 출생한 인물로서 15세기 전반인 1436년에 출생한 『매헌 선생문집(梅軒先生文集)』의 이인형(李仁亨)부터 19세기 후반인 1893년에 출생한 『금계집(琴溪集)』의 조우식(趙祐植)까지 457년의 간극이 있다.

함안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저자 66인의 출생연도 분포를 100년 단위로 분석해 보면, 15세기 5인(7.5%), 16세기 14인(21.2%), 17세기 9인(13.6%), 18세기 9인(13.6%), 19세기 29인(43.9%)으로 19세기 인물이 가장 많고, 다음이 16세기이며, 17세기·18세기, 15세기의 순이다. 16세기에 비해 17·18세기 출생자의 문집 간행이 적은 것은 인조반정으로 광해군대의 집권세력인 합천의 정인홍을 비롯한 북인세력이 몰락함으로 인해 경남 지역의 문풍이 많이 위축된 것과 관련이 깊다고 본다.<sup>38)</sup> 하지만 함안은 정인홍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 했던 조임도 등으로 인해 위축의 정도가 합천의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20 : 7 : 5>보다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하겠다.

출생연도가 가장 빠른 인물은 조선초기인 1436년에 출생한 매헌(梅軒) 이인형(李仁亨, 1436-1503)이다. 함안이씨로 대사성을 지낸 이미(李美)의 아들인 매헌 이인형, 행헌(杏軒) 이의형(李義亨) 형제는 점필재 김종직의 제자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인형은 연산군이 즉위한 1495년에 대사간에 올라 연산군의 실정을 바로잡고자 21회에 걸쳐 직간하였다. 그러나 연산군의 실정을 충간으로는 불가함을 직시하고 1503년(연산군 9)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별세하였다. 이듬해인 1504년(연산군 10)에 갑자사화가 일어나니 1498년의 무오사화 때 죄 없이 죽어가는 선비들을 구하고자 올린 상소, <논구유생사(論救儒生事)>의 수창자(首唱者)로 지목되어 부관참시(剖棺斬屍) 당하였다. 중종반정(中宗反正) 이후 신원되고 예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sup>39)</sup> 사후 453년 후인 1956년에 14세

38) 송정숙, “경남 합천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양상,” 『서지학연구』, 제73집(2018.3), 226.

손인 이재순의 주선으로 『매헌선생문집』이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 3.2.2 저자의 성관(姓貫)

향촌사회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조선 시대에 학문적 역량이 있는 선조가 있음을 증거하는 문집 간행은 문중의 주요 사업이었다. 함안에서 68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문중을 파악하고자 문집 저자의 성씨와 관향(貫鄉), 즉 성관(姓貫)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함안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저자의 성관(姓貫)

발행 종수	성씨의 종류	성관	저자명(출생년, 문집명)
15종	1	함안조씨	趙舜(1467, 玉峰先生逸稿), 趙壽千(1482, 北溪實紀), 趙瑯(1557, 斗巖公文集), 趙任道(1585, 澗松先生續集), 趙徵天(1609, 道峰先生文集), 趙景弼(1659, 芹村文集), 趙昌鉉(1763, 聾溪處士遺稿), 趙性源(1838, 紫巖遺稿), 趙性恂(1844, 醉石堂集), 趙性胤(1845, 廣川集), 趙丙奎(1846, 一山先生文集), 趙錫濟(1848, 錦溪文集), 趙貞奎(1853, 西川先生文集), 趙麟奎(1860, 雲樵集), 趙祐植(1893, 琴溪集)
10종	1	순흥안씨	安灌(1491, 聚友亭先生實記), 安憲(1551, 竹溪先生文集), 安國章(1685, 殷溪先生遺集), 安慶稷(1721, 雙梅堂遺集), 安慶一(1724, 聾窩集), 安致權(1745, 乃翁遺稿), 安宅柱(1805, 道窩逸稿), 安有商(1857, 陶川先生文集), 安鼎呂(1871, 晦山先生文集), 安達中(1876, 勉堂文集)
7종	1	창원황씨	黃悞(1606, 獨梧先生文集), 黃道翼(1678, 夷溪處士文集), 黃孝昌(1687, 恒齋先生文集), 黃朴又(1690, 聾瞽先生文集), 黃後幹(1700, 夷峰先生文集), 黃正基(1799, 挑圃文集), 黃熙壽(1855, 德菴文集)
5종	2	재령이씨	李瀟(1550, 葛村先生集), 李潤龍(1776, 三便齋遺集), 李有星(1808, 廣樓李公遺集), 李正浩(1865, 棲山先生文集), 李鎡浩(1884, 晚樓遺稿)
		성산이씨	李倂(1535, 篁谷先生文集), 李佶(1538, 儉溪先生文集), 李明志(1565, 梅竹軒先生文集), 李敏植(1838, 悔叟文集), 李珩基(1860, 杞岡文集)
4종	2	광주안씨	安英重(1797, 訥窩遺稿), 安秉遠(1848, 蘇窩實記), 安規遠(1851, 芙岡遺稿), 安冀遠(1863, 龜陰集)
		김해김씨	金銚(1503, 四時堂實記), 金彥秀(1568, 龜軒實記), 金昌稷(1872, 龜川遺集), 金振斗(미상, 石南詩集)
3종	1	인천이씨	李休復(1568, 養拙亭集), 李尙斗(1814, 雙峯集), 李泰文(1861, 晚最先生文集)
2종	2	경주박씨	朴希參(1486, 茅菴松溪合稿), 朴圭煥(1840, 東南文集)
		장수이씨	李三老(1560, 孤山先生實紀), 李時頤(1588, 雲臆先生文集)
1종	11	경주김씨	金丙一(1867, 農窩實記)
		안동권씨	權命熙(1865, 三畏齋文集)
		포산곽씨	郭永守(1852, 玄圃逸稿)
		나주나씨	羅翼南(1558, 菊庵先生文集)
		남평문씨	文學庸(1604, 防隱實記)
		분성(김해)배씨	裴良玉(1622, 四吾堂先生逸集)
		전주이씨	李種(미상, 德恩監實記)
		함안이씨	李仁亨(1436, 梅軒先生文集)
		경주정씨	鄭再玄(1765, 剛齋集)
		상산주씨	周時成(1843, 溪隱實紀)
		여양진씨	陳健(1598, 明窩遺稿)
계	21		

39) 이인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위 <표 5>에서 보듯이, 함안지역에서 목활자로 간행된 문집 68종의 저자 68인의 성관은 모두 21개 성씨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성씨는 15종을 간행한 함안조씨이고, 다음은 10종을 간행한 순흥안씨, 다음은 7종을 간행한 창원황씨, 다음은 5종을 간행한 재령이씨와 성산이씨, 다음은 4종을 간행한 광주안씨와 김해김씨, 다음은 3종을 간행한 인천이씨, 2종을 간행한 경주박씨와 장수이씨의 순이다. 1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성관은 11개 성씨로서 경주김씨, 안동권씨, 포산곽씨, 나주나씨, 남평문씨, 분성배씨, 전주이씨, 함안이씨, 경주정씨, 성산주씨, 여양진씨이다.

함안의 씨족 형성과 인물 배출 및 학문적 분위기에 대해서 매죽헌 이명호(1565-1624)가 1603년(선조 36)에 쓴 <重修鄉案序>에서 “군(함안군)의 큰 성씨나 명망 있는 집안은 다음과 같다. 그 가운데 첫째가 趙氏인데 함안의 토박이 성이다. 李氏는 재령이씨, 성주이씨, 여주이씨, 인천이씨가 있고, 토박이 성인 함안이씨가 있다. 안씨는 순흥안씨와 광주안씨가 있고, 어씨는 함중어씨가 있고, 김씨는 선산김씨와 울산김씨가 있고, 오씨는 고창오씨, 하씨는 진양하씨, 박씨는 밀양박씨와 경주박씨가 있다. 그밖에 성씨는 이루 다 열거할 겨를이 없지만, 다 번성하여 명경거공이 이어져서 배출되었다. 그래서 땅은 비록 바닷가에 붙어 있지만 집집마다 글을 외우고 거문고를 연주한다. 함안의 풍속은 예의를 숭상하고 순박한 기풍을 전해오고 있으므로 朝野에서는 모두 사대부의 고을이라 일컫고 있다.”<sup>40)</sup>고 하였다. 이명호가 <중수향안서>를 썼던 17세기 초의 유력 문중이 19세기 이후 목활자본 문집도 많이 발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함안에서 가장 많은 15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함안조씨는 시조 조정(趙鼎) 이후로 함안에 정착하여 대를 이어 살아서 함안 지역 최대의 성족(盛族)으로 발전하였다. 시조 조정은 중국 후당인(後唐人)으로 신라 말에 두 아우 조부(趙釜)와 조당(趙鎰)을 데리고 한반도로 온 후 왕건(王建)을 도와 함천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931년(고려 태조 14) 고창성(古昌城)[지금의 안동]에서 후백제의 견훤 군사를 대파하여 동경(東京) 관할 하에 있던 주현(州縣)의 항복을 받아 고려 건국에 큰 공을 세웠다. 그가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 대장군 원윤(元尹)에 오름으로써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삼고 함안을 본관으로 하였다.

문헌으로 고증할 수 있는 함안과 관계가 있는 최초 인물은 고려 말의 금은(琴隱) 조열(趙悅)이다. 조열은 공민왕 때 공조 전서(工曹典書)를 지냈는데, 고려가 망하자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지절을 지켜 벼슬을 버리고 함안 군북면 원북리에 은거하였다. 금은 조열의 넷째 아들이 조안(趙安)이고, 조안의 아들이 어계(漁溪) 조려(趙旅, 1420-1489)이다. 현재 함안에 세거하고 있는 함안조씨는 대부분 어계 조려의 후손들이다. 조려의 손자인 조순(趙舜, 1467-1529)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 참관에 이르렀으며, 조순 형제가 1516년 강혼(姜渾)의 서문을 붙여 조부인 조려의 문집 『어계집』을 목판에 판각하였다. 조순의 문집 『玉峰先生逸稿』도 1937년에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40) 李明忠, <重修鄉案序>, 『梅竹軒集』; 허권수, “咸安의 人物과 學問的 傳統,” 허권수 외, 『함안의 인물과 학문』 (I) (함안: 함안문화원, 2010), 5.

어게 조려의 손자로 1503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중종반정에 선전관으로 가담하고 밀양부사를 역임 하였던 趙壽千(1482-1553)의 『北溪實紀』가 염수재에서 사후 381년만인 1934년에 인출되었고, 어게 조려의 현손인 趙瑋(1557-1637)의 『斗巖公文集』은 1927년에 인출되었으며, 대소현 조종도의 손자인 趙徵天(1609-1660)의 『道峰先生文集』은 7세손 조성인의 주선으로 사후 250년만인 1910년에 인출되었다.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의 문인인 간송 조임도의 『澗松先生文集』은 현손 조홍엽의 주도하에 1744년에 목판으로 간행되었고, 후손 趙善秀가 원집에서 누락된 자료를 수습하여 『澗松先生續集』을 1930년에 함강정에서 목활자로 인출하였다. 조려의 후손인 趙景栻(1659-1723)의 『芹村文集』은 1911년에 6세손 조굉규에 의해 사후 188년만인 1911년에 인출되었다. 조려의 후손으로 입재 정종로의 문인인 趙昌鉉(1763-1816)의 『龔溪處士遺稿』가 1967년에 인출되었다. 趙祐植(1833-1867)의 『琴溪集』은 1920년에 아들 조성초가 유고를 수습하여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조려의 후손으로 허전 문인인 趙性源(1838-1891)의 『紫巖遺稿』가 손자 조용호에 의해 1957년에 간행되었다. 조려와 조익도의 후손인 趙性恂(1844-1905)의 『醉石堂集』이 서산서당에서 1939년에 인출되었다. 趙性胤(1845-1914)의 『廣川集』은 1924년에, 성재 허전 문인으로 산청 이택당에서 『성재집』 간행에 힘을 썼던 趙昺奎(1846-1931)의 『一山先生文集』이 1933년에 一山亭에서 인출되었다. 성재 허전을 사숙했던 趙錫濟(1848-1925)의 『錦溪文集』이 후손 조굉규에 의해 1927년에 인출되었다. 조종도의 후손으로 성재 허전 문인인 趙貞奎(1853-1920)의 『西川先生文集』이 1922년에 간행되었다. 대한협회 함안지회 평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서산서원 터에 서산서당을 짓고 스승을 초빙하여 자제를 가르쳤던 趙懋奎(1860-1921)의 『雲樵集』이 서산서당에서 인출되었고, 趙祐植(1833-1867)의 『琴溪集』은 1920년에 인출되었다.

함안에서 두 번째로 많은 10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순흥안씨(順興安氏)는 고려시대 안자미(安子美)를 시조로, 안창공(安昌恭, 1491-1534)·안창렴(安昌廉)과 안관(安灌, 1491-1553)을 입향조로 하고 영주시 순흥면을 본관으로 하는 함안 지역의 세거 성씨이다.

고려 신종 때 신호위(神虎衛) 상호군(上護軍)에 추봉된 안자미는 안영유(安永儒)·안영린(安永麟)·안영화(安永和) 등 3형제를 두었다. 이들 후손들이 오늘날 소위 순흥안씨 1·2·3파라고 하는 추밀공파(樞密公派)·별장공파(別將公派)·교서공파(校書公派)로 나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파에는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이 크게 현달하여 가문이 번창했다. 2파에서는 순흥부원군(順興府院君)에 봉해진 안문개(安文凱, ?-1338)가 이름이 났으며, 3파에서는 우문관(右文館) 대제학(大提學)을 지내고 <죽계별곡(竹溪別曲)>을 남긴 근재(謹齋) 안축(安軸, 1282-1348)이 유명하다.

조선 중종 때 함안에 입향한 순흥안씨는 1파와 3파이다. 1파의 안창공·안창렴 형제는 함안군 산인면 모곡(茅谷)으로 입향하였다. 3파의 안관은 1523년에 박덕손(朴德孫)과 함께 남으로 내려와 여항산 기슭에 은거하였다. 이들이 함안으로 내려온 이유는 1519년의 기묘사화(己卯士禍)와 1521년에 일어난 신사무옥(辛巳誣獄) 때문이다. 당시 조광조의 지지자인 안당(安瑯)과 안처겸(安處謙)·안처근(安處謹) 등이 처형당하자 같은 문족(門族)으로서 화를 피해 처의 고향인 함안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안창공의 처부는 함안 모곡에 거주하고 있던 재령이씨 이개지(李介智)이다. 안창렴의 처부 이존인(李存仁) 역시 함안에 기반을 가지고 있던 광평이씨 정무공 이호성(李好誠)의 손자이다. 3과의 후손인 안관 역시 처의 고향인 함안으로 이주해 오면서 함안의 주요 성씨로 자리 잡게 되었다.

1과 입향조 안창공은 안향의 11세손으로 그 손자 모현(茅軒) 안민(安愍, 1539-1592)은 임진왜란 때 김해에서 전사하였다. 안민의 아우 죽계(竹溪) 안희(安憲, 1551-1613)는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이 되었다. 임진왜란 때 김해에 우거하고 있었는데, 여러 郡이 와해되는 것을 보고 의병을 일으켜 1백여 차례나 싸웠다. 殘兵을 이끌고 晉陽城에 들어가 싸우다 성이 함락되어 세 아들을 모두 잃었다. 57세에 형조정랑에 제수되었으며, 외직으로는 단양군수, 대구부사를 역임하였다. 안희의 『죽계선생문집』이 1890년에 함안 모곡에서 인출되었다.

3과의 입향조 안관(安灌, 1491-1553)은 안축의 7세손으로 1491년 서울 금천(紇川)에서 태어나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1482-1519)와 중유하였다. 함안으로 낙남(落南)한 후 여항산 기슭의 사락동에 정사를 지어 취우정(聚友亭)이라 자호(自號)하고 후학들을 가르쳤으며, 『聚友亭先生實記』가 1957년에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안관의 후손 은계(殷溪) 안국장(安國章, 1685-1733)은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구휼하여 암행어사 박문수로부터 칭송을 받았는데, 그의 문집 『殷溪先生遺集』이 현손 안상仁和 안상默의 주선으로 사후 165년인 1898년에 간행되었다. 안축의 후손으로 김성탁의 문인인 안慶稷(1721-1783)의 『雙梅堂遺集』은 1906년에, 안慶一(1724-1788)의 『龔窩集』은 1905년에 士樂洞 望菴에서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안致權(1745-1813)의 『乃翁遺稿』와 안宅柱(1805-1869)의 『道窩逸稿』는 1934년에, 안有商(1857-1929)의 『陶川先生文集』은 1933년에 취우정에서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회산(晦山) 안정려(安鼎呂, 1871-1939)는 면우(旻宇) 곽종석(郭種錫)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저서로 『오서집의(五書釋義)』와 『상변요의(常變要義)』가 있으며, 『회산선생문집(晦山先生文集)』이 1945년에 아들 안달이 주도하여 목활자로 인출되었다.<sup>41)</sup> 안達中(1876-1941)의 『勉堂文集』은 1946년에 인출되었다.

함안에서 세 번째로 많은 7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성관은 창원황씨(昌原黃氏)로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가 창원황씨 집성촌이다. 창원황씨로서 목활자본을 인출한 인물은 7인이다. 황협(黃俠, 1606-1686)은 고려 회산부원군(檜山府院君) 황석기(黃石奇)의 12세손으로 11세에 두견시(杜鵑詩)를 지어 유림들을 경탄시켰고, 13세에 부모상을 당하여 상례를 어른과 다름없이 지냈으며, 조모의 봉양과 자매들의 양육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었다. 간송(澗松) 조임도(趙任道)·미수(眉叟) 허목(許穆)과 도의계(道義契)를 맺고 거처하는 집 앞에 벽오동(碧梧桐)을 심어 현관을 ‘독오당’이라 하였다. 『獨梧先生文集』이 7세손 황혁기에 의하여 1872년에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밀암(密庵) 이재(李裁)·제산(霽山) 김성탁(金聖鐸) 등과 교유하며 주리적인 이황의 학설을 따랐던 黃道翼(1678-1753)의 『夷溪處士文集』은 1909년에 5대손 황기우가 편집, 간행하였다. 黃孝昌(1687-1729)의 『恒齋先生文

41) 순흥안씨(順興安氏),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集』은 1910년에 간행되었으며, 황협의 현손인 黃垓(1690-1768)의 『龔簪先生文集』이 6대손 황희수에 의해 1911년에 간행되었다. 밀암 이재의 문인인 黃後幹(1700-1773)의 『夷峰先生文集』이 1909년에 간행되었고, 黃正基(1799-1856)의 『挑圃文集』이 1910년에 간행되었다. 황정기의 손자인 黃熙壽(1855-1921)의 『德菴文集』이 용산서당에서 1937년에 간행되었다.

함안에서 네 번째로 많은 5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성관은 재령이씨와 광평이씨이다.

재령이씨는 이우칭(李禹稱)을 시조로 하고, 이오(李午)를 입향조로 하는 함안 지역의 세거 성씨로서 황해도 재령을 본관으로 한다. 이를 ‘안릉이씨(安陵李氏)’라고도 한다. 재령이씨 시조 이우칭은 경주이씨 소판공(蘇判公) 이거명(李居明)의 후손이다. 고려조 보조공신에 책록되고 문하시중을 지낸 후 재령군에 봉해지자 후손들이 재령을 본관으로 삼았다. 그러나 시조 이후의 정확한 기록이 없어 고려 말 상장군 이소봉(李小鳳)을 중시조로 하여 계대를 이어 오고 있다. 이소봉의 두 아들은 중랑장(中郎將) 이일상(李日祥)과 사재령(司宰令) 이일선(李日善)이다. 이일선은 고려가 망하자 가솔을 거느리고 밀양에 내려와 은거하였으며, 6남 1녀의 자손은 전국에 걸쳐 번성하게 되었다. 특히 넷째 아들 모은 이오는 함안군 모곡으로 이거하여 모은공파(茅隱公派)의 파조가 되었다. 이오는 고려 유민의 거주지임을 뜻하는 고려동학비(高麗洞學碑)를 세워 논과 밭을 일구어 자급자족하였다. 그는 아들에게도 조선 왕조에 벼슬하지 말 것과 자기가 죽은 뒤라도 자신의 신주(神主)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 것을 유언하였다. 그의 유언을 받은 후손들은 19대 600여 년에 이르는 동안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이에 고려동(高麗洞)이라는 이름으로 오늘까지 이어 오고 있다.

이오는 고려 말에 아버지 이일선이 개성에서 밀양으로 내려와 은거할 때 함께 남하하였다. 그 후 의령 두심동(杜心洞)에 은거해 있던 만은(晩隱) 홍재(洪載)와 함안에 은거해 있던 금은(琴隱) 조열(趙悅)과 서로 왕래하던 중 함안군 모곡에 자미화(紫薇花)가 활짝 핀 것을 보고 그곳에 터를 잡아 정착하였다. 함안에 거주하고 있는 재령이씨는 대부분 이오의 후손이다.<sup>42)</sup>

모은 이오의 5세손인 李瀟(1550-1615)의 『葛村先生實紀』는 1946년에 琴湖亭에서 목활자로 인출되었고, 유심춘의 문인으로 갈암 이현일의 복직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던 李潤龍(1776-1855)의 『三便齋遺集』는 사후 49년만에 현손 이기호와 이중호에 의해 1904년에 인출되었다. 밀암 이재의 문인인 이빈망의 증손인 李有星(1808-1864)의 『廣棲李公遺集』은 1935년에 손자 이광흠에 의해 廣川齋에서 인출되었고, 李正浩(1865-1941)의 『棲山先生文集』은 山下亭에서 1954년에, 李鎡浩(1884-1969)의 『晩棲遺稿』는 아들 이병선에 의해 1973년에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함안에서 5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인출한 성산이씨(星山李氏)는 이무재(李茂材)를 시조로 하며, 조선 전기에 정무공(靖無公) 이호성(李好誠, 1397-1467)이 함안으로 이거한 후 함안의 대표적인 가문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광평 이씨(廣平李氏)’, ‘성산·광평 이씨(星山·廣平李氏)’라고도 한다. 이호성의 할아버지 이해(李咳)가 경북 성산[성주]에서 처가가 있던 금산(金山, 지금의 金泉)으로

42) 재령이씨(載寧李氏),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이주하였다. 그 후에 이호성이 단종 폐위 때 처가인 함안의 하리(下里) 동지산(冬只山)으로 내려와 우거한 것이 함안의 첫 입향(入鄕)이었다. 이호성은 만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금산으로 환향(還鄕)하였지만 자손들은 함안·의령 등지에 머물러 세거해 오고 있다.

오늘날 함안에 살고 있는 성산이씨는 이호성의 셋째 아들 이거인(李居仁)과 넷째 아들 이처인(李處仁)의 후손들이다. 셋째 아들 이거인은 세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절도사를 세 번 지냈다. 이처인 역시 1460년(세종 6)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봉사(奉事)를 지냈으며, 그의 둘째 아들 현감공 이순조(李順祖) 역시 성종 때 무과에 급제하여 네 고을의 원을 지냈는데, 청백(淸白)하여 떠난 후 모두 거사비(去思碑)가 세워졌다. 이후로 이순조 자손들이 가장 번성하였는데, 그 손자 황곡(篁谷) 이칭(李稱, 1535-1600)은 퇴계(退溪) 이황(李滉) 문하에서 공부하여 실천이 독실하였다. 만년에 현감에 임명되었다가 지평을 지냈다. 도림서원(道林書院)에 향사되었으며, 황곡의 맏아들 매죽헌(梅竹軒) 이명호(李明晸, 1565-1624)는 아버지를 이어 학문과 덕행으로 이름이 높아 여양서원(廬陽書院)에 배향되었으며, 『황곡선생문집』과 『매죽헌선생문집』이 1924년에 7세손 이익호에 의해 봉산정에서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황곡의 바로 아래 아우 검계(儉溪) 이길(李佺, 1538-?)의 『검계선생문집』도 1977년에 11세손 이용호에 의해 인출되었다.<sup>43)</sup> 성재 허전 문인인 李敏植(1825-1897)의 『梅叟文集』은 함안의 조태문, 이훈호 등이 편집하여 1910년에 인출하였고, 李珩基(1860-1909)의 『杞岡文集』은 1936년에 河謙鎭의 서문을 받아 1937년에 목활자로 인출하였다.

함안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을 많이 간행한 함안조씨, 순흥안씨, 창원황씨, 재령이씨, 성산이씨 등 함안의 주류 지식인 집단의 학문 형성에 영향을 끼친 스승들은 밀양의 점필재 김종직, 안동의 퇴계 이황, 함안군수로 왔던 한강 정구, 여현 장현광, 퇴계의 영남학통을 잇는 안동의 밀암 이재와 제산 김성탁, 김해부사로 내려온 기호남인 성재 허전, 거창의 면우 곽종석 등이다. 남명 조식과 교류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으나 인조반정 이후 함안의 학문적 지향은 퇴계의 학통을 존승하는 영남 학파, 정치적으로는 남인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리하여 갈암 이현일의 신원을 요청하는 복직소를 올리기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 3.3 문집의 간행사항 분석

#### 3.3.1 간행연도 분석

문집의 간행연도는 문집 권말의 간행기록인 간기(刊記)와 인기(印記), 1909년 출판법 공포 이후 간행된 책의 경우에는 판권지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간혹 간행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서문이나 발문 가운데 가장 최후에 작성된 서문이나 발문의 작성연도를 통해 간행연도를 추정하였다.

43) 광평이씨(廣平李氏),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표 6> 함안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연도

간행연도	종수 (%)		간행년(저자, 문집명)
1840-1849	1(1.5%)	1(1.5%)	1840(李休復, 養拙亭集)
1850-1859	4 (6.7%)	1(1.5%)	1857(金銚, 四時堂實記)
1860-1869		0	-
1870-1879		1(1.5%)	1872(黃恢, 獨梧先生文集)
1880-1889		0	
1890-1899		2(2.9%)	1890(安憲, 竹溪先生文集), 1898(安國章, 殷溪先生遺集)
1900-1909	51 (75%)	6(8.8%)	1904(李潤龍, 三便齋遺集), 1905(安慶一, 聾窩集), 1906(安慶稷, 雙梅堂遺集), 1909(黃道翼, 夷溪處士文集), 1909(黃後幹, 夷峰先生文集), 1909-1923추정(朴希參, 茅菴松溪合稿)
1910-1919		11(16.2%)	1910(安冀遠, 龜陰集), 1910(李敏植, 梅叟文集), 1910(趙徵天, 道峰先生文集), 1910(黃正基, 挑圃文集), 1910(黃孝昌, 恒齋先生文集), 1911(趙景杖, 芹村文集), 1911(黃朴又, 聾瞽先生文集), 1916(安秉遠, 蘇窩實記), 1916(李三老, 孤山先生實紀), 1916(李時頤, 雲隱先生文集), 1917(李尙斗, 雙峯集)
1920-1929		15(22.1%)	1920(金彥秀, 龜軒實記), 1920(羅翼南, 菊庵先生文集), 1920(趙祐植, 琴溪集), 1921(鄭再玄, 剛齋集), 1922(趙貞奎, 西川先生文集), 1924(李明忘, 梅竹軒先生文集), 1924(李侁, 篁谷先生文集), 1924(趙性胤, 廣川集), 1924(陳健, 明窩遺稿), 1925(權命熙, 三畏齋文集), 1925(朴圭煥, 夷南文集), 1927(趙瑯, 斗巖公文集), 1927(趙錫濟, 錦溪文集), 1929(郭永守, 玄圃逸稿), 1929(金振斗, 石南詩集)
1930-1939		14(20.6%)	1930(趙任道, 澗松先生續集), 1933(安有商, 陶川先生文集), 1933(趙丙奎, 一山先生文集), 1934(安致權, 乃翁遺稿), 1934(安宅柱, 道窩逸稿), 1934(趙壽千, 北溪實紀), 1935(李有星, 廣樓李公遺集), 1935(趙燦奎, 雲樵集), 1936(周時成, 溪隱實紀), 1937(安規遠, 芙岡遺稿), 1937(李珩基, 杞岡文集), 1937(趙舜, 玉峰先生逸稿), 1937(黃熙壽, 德菴文集), 1939(趙性恂, 醉石堂集)
1940-1949		5(7.4%)	1941(裴良玉, 四吾堂先生逸集), 1943(金丙一, 農窩實記), 1945(安鼎呂, 晦山先生文集), 1946(安達中, 勉堂文集) 1946(李瀟, 葛村先生集)
1950-1959	11 (16.2%)	6(8.8%)	1952(李種, 德恩監實記), 1954(李正浩, 棲山先生文集), 1956(李仁亨, 梅軒先生文集), 1957(安灌, 聚友亭先生實記), 1957(趙性源, 紫巖遺稿), 1950(文學庸, 防隱實記)
1960-1969		2(2.9%)	1962(金昌稷, 龜川遺集), 1967(趙昌鉉, 聾溪處士遺稿)
1970-1979		3(4.4%)	1971(李泰文, 晚最先生文集), 1977(李佶, 儉溪先生文集), 1973(李鎡浩, 晚棲遺稿)
미상	1(1.5%)	1(1.5%)	간행년 미상(安英重, 訥窩遺稿)
계	68		

위 <표 6>에서 보듯이, 경남 함안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68종은 모두 19세기 이후에 간행되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20세기 전반부인 1900년-1949년까지의 50년 동안에 전체 68종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51종이 간행되었고, 20세기 후반부인 1950년-1973년까지 11종(16.2%)이 간행되어 20세기에 62종(91.2%)이 간행었다. 이로써 함안에서 목활자본 문집은 거의 대부분이 20세기에 간행되었으며, 특히 20세기 전반기에 가장 활발히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남의 산청이나 함천, 진주 등과 동일한 현상이다.

함안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은 1840년에 간행된 이휴복(李休復, 1568-1624)의 『양졸정집(養拙亭集)』이다. 이휴복은 호는 양졸정(養拙亭), 본관은 인천으로 박제인(朴齊仁)의 문인이다. 임진왜란 때 곽재우(郭再祐)와 함께 의병을 일으켰고, 1606년(선조 39) 무과에 급제하였다.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공을 세워 진무공신(振武功臣) 3등에 녹훈되고, 인원군(仁原君)에 봉하여졌다. 호조판서에 추증되고, 함안 도천사(道川祠)와 도계서원에 제향되었다.<sup>44)</sup> 『양拙정집(養拙亭集)』이 1840년에 이황의 후손인李家淳(1768-1844)의 서문을 받아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함안에서 마지막으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은 1973년에 간행된 이기호(李鎡浩)의 『만서유고(晩棲遺稿)』이다. 이기호(1884-1969)는 호는 만서(晩棲)이며, 본관은 재령으로 고려 말 이오(李午)의 후손이다. 이기호가 세상을 떠난 다음해인 1970년경에 아들 이병선이 이기호가 남긴 글을 정리해서 안정수(安挺洙)에게 문집의 편집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안종희(安鍾禧)에게 교정을 받고 만사(輓詞)와 제문(祭文) 및 전기문을 포함하여 1책을 만들어 1973년 목활자로 인출하였다.<sup>45)</sup>

함안 지역에서 1840년 이전에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다음 <표 7>에서 보듯이 1840년 이전에는 문집 간행이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목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7> 함안지역의 목판본 문집 간행시기<sup>46)</sup>

시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미상	합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목판본	1	1	0	3	4	2	9	29	0	7	56	
%	2%	2%	0%	5%	7%	3%	16%	52%	0%	13%	100%	

그런데 위 <표 7>에서 보듯이 함안지역에서 목판본 문집 간행도 목활자본 문집과 같이 20세기 전반부에 가장 활발하였다. 하지만 목활자본 문집은 20세기 전반부에 이어 20세기 후반부에 많은데 비해 목판본 문집은 20세기 후반부에는 1종도 발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세기 후반부는 목활자인쇄도 줄어들고 석판인쇄와 신연활자 인쇄로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3.3.2 저자 사후 문집간행 소요기간 분석

경남 함안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 68종이 저자 사후 몇 년 만에 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저자 사후 문집간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 <표 8>과 같다.

경남 함안지역에서 간행된 68종의 목활자본 문집은 저자 사후 2년부터 사후 492년까지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문집 68종 가운데 100년 단위로 보면, 목활자본 문집은 저자 사후 1~100년 사이에 32종(47.1%)이 간행되었으며, 저자 사후 101~200년 사이에 11종(16.2%), 저자 사후 201~

44) 한국학중앙연구원.편, 이휴복(李休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5) 만서유고, 디지털함안문화대전.

46)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 424.

300년 사이에 13종(19.1%)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저자 사후 301~400년 사이와 401~500년 사이에 4종(5.9%)이 간행되었다. 함안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은 저자 사후 50년 이내에 약 1/2이 간행되었고, 저자 사후 10년 이내에 약 1/5이 간행되었다.

문집 유형별 저자 사후 문집간행 소요기간을 볼 때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실기이다. 실기가 11종 가운데 약 73%에 해당하는 8종이 저자 사후 250년 이후부터 500년 이내에 간행되었다. 이는 저자 사후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범상하지 않은 선조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 후손들이 전하는 글을 수습하고 부록으로 행장이나 묘갈명 등 전기자료, 또는 서원봉안문이나 고유문 등을 편차하여 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저자가 남긴 시문의 다소를 막론하고 문집을 간행함은 문중에 훌륭한 삶과 학문이 있는 선조가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향촌사회에서 가문의 품격을 제고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파악된다.

<표 8> 함안지역 목활자본 문집 유형별 저자 사후 문집간행 소요기간

저자 사후 소요기간		종수 (%)		기간(간행년, 문집명)		
				문집	유집	실기
사후 1-50년	사후 1-10년	32 (47.1%)	13 (19.1%)	2년(1910. 龜陰集/ 1922. 西川先生文集/ 1925. 三畏齋文集/ 1925. 夷南文集/ 1927. 錦溪文集/ 1933. 一山先生文集) 4년(1933. 陶川先生文集), 5년(1946. 勉堂文集), 6년(1945. 晦山先生文集) 10년(1924. 廣川集)	4년(1973. 晚棲遺稿)	3년(1943. 農窩實記), 5년(1916. 蘇窩實記)
	사후 11-20년		6 (8.8%)	13년(1910. 悔叟文集) 13년(1954. 棲山先生文集), 14년(1935. 雲樵集), 16년(1937. 德菴文集)	18년(1937. 芙岡遺稿)	13년(1936. 溪隱實記)
	사후 21-30년		2 (2.9%)	28년(1937. 杞岡文集)	23년(1962. 龜川遺集)	
	사후 31-40년		4 (5.9%)	32년(1971. 晚最先生文集), 34년(1939. 醉石堂集), 35년(1917. 雙峯集)	39년(1929. 玄圃逸稿)	
	사후 41-50년		1 (1.5%)		49년(1904. 三便齋遺集)	
사후 51-100년		6(8.8%)	53년(1920. 琴溪集) 54년(1910. 挑圃文集), 75년(1921. 剛齋集)	65년(1934. 道窩逸稿) 66년(1957. 紫巖遺稿), 71년(1935. 廣棲李公遺集)		
사후 101-150년	11 (16.2%)	5(7.4%)	117년(1905. 薺窩集), 136년(1909. 夷峰先生文集), 143년(1911. 薺齋先生文集)	121년(1934. 乃翁遺稿), 123년(1906. 雙梅堂遺集)		
사후 151-200년		6(8.8%)	156년(1909. 夷溪處士文集), 181년(1910. 恒齋先生文集), 188년(1911. 芹村文集), 192년(1872. 獨梧先生文集)	151년(1967. 薺溪處士遺稿), 165년(1898. 殷溪先生遺集)		
사후 201-250년	13 (19.1%)	4(5.9%)	216년(1840. 養拙亭集), 250년(1910. 道峰先生文集)	246년(1924. 明窩遺稿), 247년(1941. 四吾堂先生逸集)		
사후 251-300년		9(13.2%)	253년(1916. 雲聽先生文集), 266년(1930. 澗松先生續集), 274년(1920. 菊庵先生文集), 277년(1890. 竹溪先生文集), 289년(1927. 斗巖公文集), 300년(1924. 梅竹軒先生文集)		262년(1950. 防隱實記), 271년(1916. 孤山先生實紀), 274년(1857. 四時堂實記)	

저자 사후 소요기간	종수 (%)		기간(간행년, 문집명)		
			문집	유집	실기
사후 301-350년	4 (5.9%)	3(4.4%)	324년(1924, 篁谷先生文集)		327년(1920, 龜軒實記) 331년(1946, 葛村先生實記)
사후 351-400년		1(1.5%)			381년(1934, 北溪實紀)
사후 401-450년	4 (5.9%)	2(2.9%)		410년(1937, 玉峰先生逸稿)	404년(1957, 聚友亭先生實記)
사후 451-500년		2(2.9%)	453년(1956, 梅軒先生文集)		492년(1952, 德恩監實記)
미상	4(5.9%)		儉溪先生文集, 茅菴松溪合稿, 石南詩集,	訥窩遺稿,	
계	68(100%)		41(60.3%)	16(23.5%)	11(16.2%)

### 3.3.3 발행소 분석

경남 함안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의 발행처(소)가 문집의 저자, 혹은 문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간기나 판권지의 발행소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간기나 인기에는 누정이나 재실의 이름만 보이기도 하고, 간기가 없더라도 가끔 발문에 나타난 간행장소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판권지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소의 이름과 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판권기에도 발행소(처)의 주소만 나타나므로 설립 주체와 건물의 용도 등 발행소의 성격은 『咸安樓亭錄 1-2』<sup>47)</sup>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표 9> 함안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발행소

구분	간행 종수	간 행 소					
		발행소명	주소	관리문중	용도	간행연도	간행 문집명(저자)
재실 (齋室)	1	感慕齋	칠원면 구성리	상산주씨	상산주씨 재실	1936	溪隱實紀(周時成)
	1	廣川齋	가야읍 광정리	재령이씨 광천공파	재령이씨 재실	1935	廣樓李公遺集(李有星)
	1	道川齋	군북면 명관리	인천이씨 공도공파	인천이씨 재실	1971	晚最先生文集(李泰文)
	1	望華齋	군북면 영운리	여양진씨 명외공파	陳健 추모	1923	明窩遺稿(陳健)
	1	新巖齋	가야읍 신암동	순흥안씨	安灌의 재실	1890	陶川先生文集(安有商)
	1	念修齋	산인면 운곡리 426	함안조씨 절도공파	영봉(靈峰)선생 추모	1934	北溪實紀(趙壽千)
	1	靈棲齋	칠북면 이령리 59			1929	玄圃逸稿(郭永守)
	1	臥龍齋	칠원읍 유원리 746	창원황씨 회산군파	황석견, 황완의 묘각	1929	恒齋先生文集(黃孝昌)
	1	遠慕齋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함안조씨 대소헌파	趙徵天의 재실	1910	道峰先生文集(趙徵天)
	1	茅谷 林齋				1910	竹溪先生文集(安憲)
	1	只山齋				1937	杞岡文集(李珩基)
	1	竹山齋	군북면 죽산동	창원황씨 공회공파	창원황씨 재실	1921	剛齋集(鄭再玄)
	1	采薇齋				1952	德恩監實記(李種)
	1	追慕齋	군북면 명관리	경주박씨	朴希參 추모	1925	夷南文集(朴圭煥)

47) 咸安文化院 편, 『咸安樓亭錄』 1-2, 咸安文化院, 1988.

경남 함안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간행양상

구분	간행 종수	간 행 소								
		발행소명	주소	관리문중	용도	간행연도	간행 문집명(저자)			
누정 (樓亭)	9	1	琴湖亭				1946	葛村先生實紀(李瀟)		
		1	山下亭	가야읍 광정리	채령이씨	李正浩 독서, 수양	1954	棲山先生文集(李正浩)		
		1	一山亭	산인면 입곡리 265	함안조씨	조병규의 강학 공간	1933	一山先生文集(趙昺奎)		
		2	鳳山亭	함안면 파수리	성산이씨 황곡공파	李文甲의 수학 공간	1924	篁谷先生文集(李偁) 梅竹軒先生文集(李明志)		
		3	聚友亭	가야읍 신음리	순흥안씨 취우정파	安灌의 수학 공간	1933	陶川先生文集(安有商)		
							1934	乃翁遺稿(安致權)		
							1934	道窩逸稿(安宅柱)		
1	合江亭	대산면 장암리 708	함안조씨	趙任道의 수학 공간	1930	澗松先生續集(趙任道)				
서원 (書院)	2	2	淸溪書院	칠서면 천계리 791	장수이씨	李三老, 李時韻 추모	1916	孤山先生實紀(李三老)		
							1916	雲隱先生文集(李時韻)		
서당	4	3	西山書堂	군북면 사촌리 948	함안조씨	趙旅 등 생육신 추모	1935	雲樵集(趙樵)		
							1937	玉峰先生逸稿(趙舜)		
		1	龍山書堂	칠원면 유원리	회원황씨	황협, 황열 추모	1937	醉石堂集(趙性恂)		
							1937	德菴文集(黃熙壽)		
기타	5	2	望菴	사략동			1906	雙梅堂遺集(安慶稷)		
							1905	聾窩集(安慶一)		
		1	龜軒						1920	龜軒實記(金彥秀)
		1	四時堂						1857	四時堂實記(金銜)
		1	金鳳九方	칠원면 유원리 788	김해김씨 삼현공파	아들 집	1929	石南詩集(金振斗)		
계	34									

함안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68종 가운데 권말의 인기(印記)나 판권지가 있는 34종의 문집에는 발행소가 명기되어 있다. 함안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이 간행된 발행소를 분석한 결과 재실(齋室)에서 14종이 발행되었고, 그 다음으로 누정에서 9종, 서당에서 4종, 서원에서 2종이 발행되었다. 이처럼 문중에서 건립한 재실이나 누정에서 목활자본 문집이 주로 발행된 사실은 문집 간행이 학문이 있는 선조를 현창하고자 하는 문중의 사업임을 말해 준다.

원래 조상의 제사는 뒤편에서 지냈으나, 현대에는 뒤편 아래에 제사 지내는 재실을 건립하게 되었는데, 중국 주자(朱子)의 한천정사(寒泉精舍)가 그 시발점이다. 이 재실에서 학문이 있는 문중 인물의 문집이 간행되었다.

함안지역에서 문집이 발행된 재실로는 感慕齋, 廣川齋, 道川齋, 望華齋, 新巖齋, 念修齋, 靈棲齋, 臥龍齋, 茅谷 林齋, 遠慕齋, 只山齋, 竹山齋, 采薇齋, 追慕齋 등 14곳이다.

감모재(感慕齋)는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에 있는 상산주씨의 재실로서 상산주씨 주시성(周時成, 1843-1923)의 『계은실기(溪隱實記)』가 1936년에 아들 주석현이 주도하여 감모재에서 간행되었다. 주시성의 생부는 주도민(周道敏)이며, 백부가 아들이 없어 29세 때 양자로 들어가 후사가 되었다. 생가와 친가에 모두 극진히 효를 행하여 현감이 두세 차례 쌀과 고기를 내려주었다. 두곡(斗谷)의 선영에 감모재(感慕齋)를 건립하여 제사를 모시는 장소를 마련하였으며, 수천 권의 책을 구입하여 후손 및 마을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하였다. 재산을 3등분해서 1/3은 자신이 소유하고, 1/3은

집안 제사를 위해 사용하며, 1/3은 친척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후로도 5차례나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었다.<sup>48)</sup>

광천재(廣川齋)는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에 있으며, 재령이씨 광천공파 누대의 재각으로, 1910년에 창건하고 1956년에 중건하였다.<sup>49)</sup> 이곳에서 재령이씨 李有星(1808-1864)의 『廣棲李公遺集』이 손자 이광흠이 자료를 수집, 편찬하여 1935년에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도천재(道川齋)는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에 있으며, 인천이씨 함안 입향조인 가선대부행경상도사 이계운(李啓耘) 이하 조상 제사를 위하여 건립된 재각(齋閣)이다.<sup>50)</sup> 1925년 노호(蘆湖) 김대림(金大林)이 백호(白虎) 윤휴(尹鑄)의 문집을 출간할 것을 인천이씨 이태문에게 요청하자 흔쾌히 수락하고 윤휴의 후손인 윤신환(尹臣煥)과 함께 1927년 경남 마산에서 윤휴의 문집을 간행하였다. 인천이씨 李泰文(1861-1939)<sup>51)</sup>의 『晚最先生文集』이 손자 이재선 등에 의해 1971년에 도천재에서 인출되었다.

망화재(望華齋)는 함안군 군북면 영운리에 위치한, 여양진씨 명와(明窩) 진건의 재각(祭閣)이다.<sup>52)</sup> 이곳에서 진건의 『명와유고』가 1923년에 인출되었다.

신암재(新巖齋)는 함안군 가야읍 신암동에 위치하며, 순흥안씨 취우정 안관의 재실이다. 1780년(정조 4)에 신암서원이 건립되어 1832년에 1차 중건, 1859년에 2차 중건하여 춘추향사가 거행되었으나, 고종 연간에 대원군의 서원 폐쇄령으로 서원은 훼철되고 취우정 선생의 사당만 이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53)</sup> 이곳에서 1890년에 安有商의 『陶川先生文集』이 간행되었다.

염수재(念修齋)는 함안군 산인면 운곡리 426에 위치하며, 함안조씨 절도공파 영봉선생의 학문과 가례 법도를 익혀 후세에 명감으로 삼고자 창건한 재사이다.<sup>54)</sup> 이곳에서 1934년에 조수천(趙壽千)의 『북계실기(北溪實紀)』가 인출되었다.

와룡재(臥龍齋)는 함안군 칠원면 유동(柳洞)리 와룡산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데, 유동은 유원(柳原)으로 알려져 있으며 창원황씨 집성촌이다. 와룡재는 회산[창원]황씨 청백리 황석건(黃碩健)과 司直公 황완(黃琬)의 산소 제사를 위한 묘각으로 1565년(명종 21)에 건립하였고, 1710년에 중수, 1930년에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55)</sup> 이곳에서 1929년에 회산황씨 黃孝昌의 『항재선생문집(恒齋先生文集)』이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원모재(遠慕齋)는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에 위치하며, 함안조씨 대소헌 조종도의 손자인 도봉 조징천(趙徵天, 1609-1660)의 재각(祭閣)이다.<sup>56)</sup> 이곳에서 조징천의 『道峰先生文集』이 7세손

48) 계은실기, 디지털함안문화대전.

49) 咸安文化院, 『咸安樓亭錄 2』(함안: 咸安文化院, 1988), 904-905.

50) 咸安文化院, 『咸安樓亭錄 2』(함안: 咸安文化院, 1988), 749-750.

51) 이태문, 디지털함안문화대전.

52) 咸安文化院, 『咸安樓亭錄 2』(함안: 咸安文化院, 1988), 1257-1258.

53) 咸安文化院, 『咸安樓亭錄 1』(함안: 咸安文化院, 1988), 474.

54) 咸安文化院, 『咸安樓亭錄 2』(함안: 咸安文化院, 1988), 1121-1122.

55) 咸安文化院, 『咸安樓亭錄 2』(함안: 咸安文化院, 1988), 1364.

56) 咸安文化院, 『咸安樓亭錄 2』(함안: 咸安文化院, 1988), 1102.

조성인의 주선으로 1910년에 인출되었다.

죽산재(竹山齋)는 함안군 군북면 죽산동에 자리하며, 창원황씨 공희공, 공정공, 평주공, 도은공의 묘소에 제사를 모시는 자손들이 모이는 곳이다.<sup>57)</sup> 이곳에서 1921년에 鄭再玄의 『剛齋集』이 인출되었다.

추모재(追慕齋)는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에 있으며, 경주박씨 박희삼(朴希參, 1486-1570)과 두 아들인 박제현(朴齊賢, 1521-1575), 박제인(朴齊仁, 1536-1618)을 배향하던 평천서원(坪川書院)이 1868년에 훼손되자 1915년에 증건한 경주박씨의 재실이다. 이곳에서 1925년에 경주박씨 朴圭煥의 『夷南文集』이 인출되었다.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정자는 琴湖亭, 山下亭, 一山亭, 鳳山亭, 聚友亭, 合江亭이다.

山下亭은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에 있으며, 재령이씨 광천공파 재사인 광천재 동쪽에 이정호가 독서와 수양을 위해 지은 정자이다.<sup>58)</sup> 이곳에서 1954년에 이정호의 『棲山先生文集』이 간행되었다.

일산 조병규(1846-1931)는 성재 허전의 문인으로 1876년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여 당시 영남에서 성호학을 계승한 만성 박치복, 단계 김인섭, 물천 김진호, 소눌 노상직 등과 경남지역의 학풍을 선도하였다. 조병규가 함안지역 유생들을 규합하여 강학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던 一山亭에서 그의 『一山先生文集』이 1933년에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鳳山亭은 함안군 함안면 과수리에 있으며, 성산이씨 황곡 이칭의 7세손 이문갑이 글을 읽고 수행하던 곳이다. 이곳에서 외숙인 갈천 임훈과 임운에게 배웠고 퇴계와 남명 문인으로 임란때 의병장이었던 황곡 이칭(李偁, 1535-1600)의 『篁谷先生文集』과 황곡의 아들로 한강 정구의 문인인 매죽헌 이명호(李明晫, 1565-1624)의 『梅竹軒先生文集』이 황곡의 8세손인 이익호의 주선으로 1924년에 인출되었다.

聚友亭은 가야읍 신음리 사락동, 즉 함안군청의 서쪽 사락동에 있으며, 징사(徵士)인 안관이 1548년(명종 3)에 건립하였다. 안관 별세 후인 1740년에 1차 증건, 1838년에 2차 증건, 1934년에 3차 증건, 1952년에 4차 증건, 1971년에 5차 증건하여 오늘에 이른다.<sup>59)</sup> 순흥안씨 취우정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곳에서 1933년에 安有商의 『陶川先生文集』, 1934년에 安致權의 『乃翁遺稿』과 安宅柱의 『道窩逸稿』가 인출되었다.

合江亭은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용화산 기슭의 강변에 조선 후기 문관이며 학자인 간송(澗松) 조임도(趙任道, 1585-1664)가 은거, 수학하기 위해 건립한 정자이다. 남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곳이므로 ‘합강정’이라는 편액을 걸게 되었다 한다. 조임도는 장현광의 제자로 학문에 전념하여 인조 반정 후 학행이 뛰어난 선비로 천거되어 한때 공조좌랑(工曹佐郎)이 되었고 인조·효종 때에는 대군의 사부로서 부름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이곳에 은거하여 학문을 수학하며 여생을 보냈다.<sup>60)</sup> 이곳에서 1930년에 조임도의 『간송선생속집』이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57) 咸安文化院, 『咸安樓亭錄 2』(함안: 咸安文化院, 1988), 1330-1331.

58) 咸安文化院, 『咸安樓亭錄 2』(함안: 咸安文化院, 1988), 923-924.

59) 咸安文化院, 『咸安樓亭錄 1』(함안: 咸安文化院, 1988), 469-470.

60) 한국학중앙연구원, 합강정(合江亭),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함안에서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서원은 청계서원이 유일하다. 청계서원은 칠서면 천계리 791에 있으며, 장수이씨 이삼로(李三老, 1560-1645), 이시분(李時黼, 1588-1663) 두 사람의 충정과 행적을 추모하기 위하여 1670년(현종 11)에 창건된 서원이다. 그러나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1868년(고종 5) 철폐되었다. 그 후 1981년에 다시 건립하여 3월 10일에 향례를 행하고 있다. 이 서원에서 향사하는 임란 때 의병을 일으켰던 이삼로의 『孤山先生實紀』와 이삼로의 조카로서 자신이 살던 단성의 자연, 인물, 호구, 풍속 등을 조사해 『단구지(丹邱誌)』를 엮었던, 한강 정구의 문인 이시분의 『雲廳先生文集』을 1916년에 간행하였다. 이시분은 단성에서 태어나고 세상을 떠났지만 후손들이 함안 칠서에 터전을 잡아 그곳에 서원을 건립하고 문집을 간행하였다.<sup>61)</sup>

함안에서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서당은 서산서당과 용산서당으로 원래 서원이었으나 철폐된 후 서당으로 복원되었다. 서산서당은 함안군 군북면 사촌동에 있으며, 이곳은 어계 조려가 공부하던 곳이다. 숙종 기묘년(1699)에 장릉을 복원하자 영남의 선비들이 어계 조려의 절행을 조정에 알려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1703년(숙종 계미)에 사당을 세워 조려와 이맹진, 원호, 김시습, 성담수, 남효온 등 생육신을 향사하였다. 10년이 지난 1713년에 서산서원이라 사액되었다. 고종 연간에 서원이 철폐되어 사당과 서원은 폐허가 되고 향사도 폐지되고 글 읽는 소리도 끊어졌다. 그후 사림이 서원터를 황폐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1902년에 그 터에 서당을 건립하였으니,<sup>62)</sup> 서산서당이다. 이곳에서 3종의 목활자본 문집이 간행되었으니, 서산서원 터에 서산서당을 짓고 스승을 초빙하여 자제를 가르쳤으며, 상해임시정부의 군자금 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대한협회 함안지회 평의원으로 활동했던 趙麟奎(1860-1921)의 『雲樵集』이 아들 조용현이 주선하여 1935년에 간행되었다. 어계 조려의 장손으로 문과급제하여 도승지와 경기감사 등을 역임한 조순(趙舜, 1467-1527)의 『玉峰先生逸稿』가 1937년에 간행되었고, 어계 조려의 후손인 趙性恂(1844-1905)의 『醉石堂集』은 1939년에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용산서당은 원래 현재 유원초등학교 북쪽에 있었는데, 이주하여 상봉서원이 되었다<sup>63)</sup>고 하는 것을 볼 때, 창원황씨 황협·황열 등을 추향하기 위하여 숙종 때 설립된 상봉서원이 고종 때 서원 철폐령으로 헐려진 후 용산서당으로 중건하였다가 광복 후 상봉서원으로 중건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황협과 황열을 추모하기 위해 중건된 용산서당에서 황희수의 『德菴文集』이 1937년에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개인의 집이 판권지에 발행소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김해김씨 삼현공파 김진두의 『석남시집』이 그 보기이다. 석남시집의 판권지에 인쇄결발행소로 기재된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788번지 金鳳九 方’은 김봉구의 집주소로 보인다. 김진두는 1909년에 결성된 대한협회 무릉지회 평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김봉구는 저자인 김진두의 아들이다. 아들 김봉구가 아버지인 김진두의 『석남시집』을

61) 청계서원, 사단법인 한국서원연합회,

<[http://www.seowonstay.com/bbs/board.php?bo\\_table=slist&wr\\_id=959](http://www.seowonstay.com/bbs/board.php?bo_table=slist&wr_id=959)>. 2020.11.15. 접속.

62) 조정규, 서산서당기(西山書堂記), 咸安文化院, 『咸安樓亭錄』 2, 咸安文化院, 1988, 1027-1028. ; 안용호, 서산서당중수기(西山書堂重修記), 1991, <<http://blog.daum.net/win690/15938918>>, 2020.11.13. 접속.

63) 『咸安樓亭錄』이나 함안 관련 자료에서 용산서당을 찾을 수 없어 함안문화원 향토문화연구위원인 조평래 선생에게 문의한 결과, 용산서당이 상봉서원으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12.10.

자기 집에서 각수 진두상의 도움으로 1929년에 목활자로 인출하였다. 김진두의 부친 김대유가 칠원 현감을 했는데, 둘째 아들이 유하에 가까운 칠원 장암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으며, 유하 입구에 김진두의 비가 서 있다고 한다.<sup>64)</sup>

### 3.3.4 인쇄자 분석

경남 함안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을 인쇄한 각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관련기의 인쇄자, 즉 각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함안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의 인쇄자 분석

지역(인원)	인쇄자	종수	주소	발행소	간행연도	서 명(저자)	
함안 (6인)	국진호(鞠眞浩)	2	함안군 가야면 검암리 577번지	鳳山亭	1924	梅竹軒先生文集(李明忘)	
				鳳山亭	1924	篁谷先生文集(李僞)	
	이차갑(李杼甲)	1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龍山書堂	1937	德菴文集(黃熙壽)	
	이장호(李璋浩)	1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289번지	四葛書堂	1934	芋山先生文集(李熏浩)	
	이현량(李鉉亮)	2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303번지	一山亭	1933	一山先生文集(趙昺奎)	
				念修齋	1934	北溪實紀(趙壽千)	
	임기후(林基厚)	2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追慕齋	1925	夷南文集(朴圭煥)	
				西山書堂	1935	雲樵集(趙燾奎)	
	진기술 (陳己述)	진기술 (陳己述)	2	함안군 군북면 영운리 194	聚友亭	1933	陶川先生文集(安有商)
						1934	乃翁遺稿(安致權)
		진두상 (陳斗相)	6	함안군 군북면 영운리 194	金鳳九方	1929	石南詩集(金振斗)
聚友亭						1934	道窩逸稿(安宅柱)
廣川齋						1935	廣棲李公遺集(李有星)
感慕齋						1936	溪隱實紀(周時成)
西山書堂	1937	玉峰先生逸稿(趙舜)					
		1939	醉石堂集(趙性恂)				
고령 (1인)	전해택(全海宅)	1	고령군 쌍동면 신촌동 59번지	靈棲齋	1929	玄圃逸稿(郭永守)	
7인		16					

위 <표 10>에서 보듯이 함안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68종 가운데 권말에 판권지가 있는 책은 16종으로 인쇄자, 즉 각수는 함안의 국진호, 이차갑, 이장호, 이현량, 임기후, 진기술, 진두상 등 7인, 고령의 전해택, 합 8인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진기술과 진두상의 주소가 동일하므로 함안군에 수소문하여 함안의 여양진씨 문중에 문의한 결과, 진기술과 진두상은 동일인으로 생전에 현판 판각도 많이 하였는데, 그때 ‘斗相’으로 판각한 것으로 보아字나 號로 보인다고 하였다.<sup>65)</sup> 따라서 함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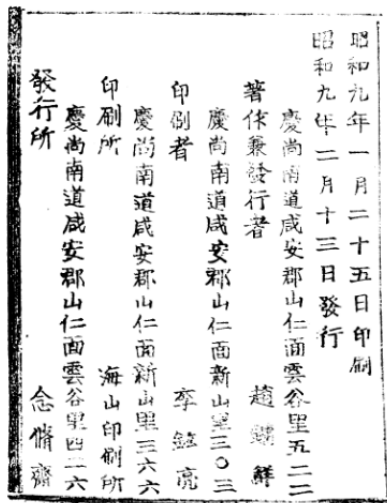
64) 함안문화원 향토문화연구위원 조평래 선생의 전언, 2020.11.26.

65) 함안군 군북면 영운리 여양진씨 문중 진종술 선생과의 전화 면담, 2020.12.9. 필자는 액자나 현판을 글 아래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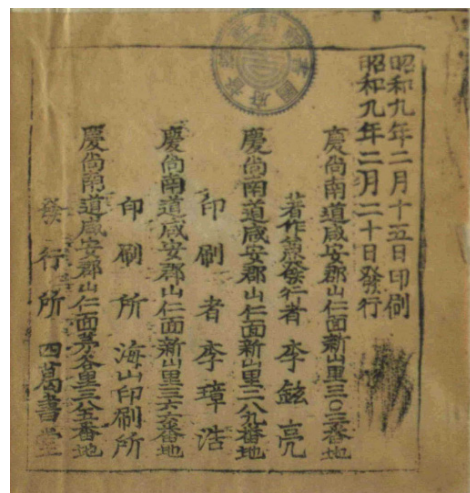
서 목활자본 문집을 인출한 각수는 모두 7인이다. 이 가운데 진기술이 8종으로 16종 가운데 절반을 인출하였고, 국진호와 이현량이 각 2종의 문집을 인출하였다.

이현량이 인출한 『일산선생문집』과 『북계실기』의 인쇄소는 해산인쇄소(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366번지)이고, 발행소는 일산정(一山亭)으로 인쇄소와 발행소가 구별되어 있다. 海山印刷所에서는 목활자본뿐 아니라 목판본과 석판본도 인쇄하였으니, 목판본으로는 예학에 밝은 일산 조병규(趙昞奎)의 『사례요의(士禮要儀)』 2권1책이 1931년, 재령이씨 이훈호(李熏浩, 1859-1932)의 『우산선생문집(芋山先生文集)』 9권5책이 발행소는 사갈서당, 인쇄소는 해산인쇄소로 1934년에 발행되었다. 여기서는 이현량이 저작겸발행자로 되어 있다. 해산인쇄소에서 석판본으로는 1929년에 『南嶠文會社案』, 1933년에 『몽엄유고(夢廣遺稿)』 등도 인쇄하였다. 이로 볼 때 해산인쇄소의 이현량은 목판, 목활자본, 석판본 등 판종을 가리지 않고 발행자의 재정 수준이나 발행부수 등에 따라 인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전에는 문집의 발행소가 문중의 재실이나 정자 또는 종가 등으로 그곳에서 문집의 편집, 판각과 인출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인쇄소의 등장으로 수요자가 인쇄소로 가서 인출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목활자본 인출에서 발행소와 인쇄소가 분리된 보기 드문 사례이다.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는 재령이씨 집성촌으로서 이장호와 이현량은 재령이씨로 파악되었다. 이현량(1891-1942)의 호는 ‘海山’으로 지역 선비로서 집에 海山印刷所를 차려 놓고 많은 문집이나 전적을 인출하였다고 한다. 이현량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관련 자료나 인쇄한 문집들을 6.25전쟁 때 땅에 묻어놓고 피난 갔다오니 다 파헤쳐져 불에 타고 없어져서 남아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sup>66)</sup>



목활자본 『북계실기』의 판권지



목판본 『우산선생문집』의 판권지

<그림 2> 판권지에 나타난 해산인쇄소

字보다는 흔히 자호(自號)를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斗相’도 號가 아닌가 생각된다.

66) 재령이씨 이현량의 손자인 이동성 선생과의 전화 면담, 2020.12.9.

이처럼 함안에는 목활자 인쇄자, 즉 각수가 많고, 함안의 목활자본 문집 간행은 대부분 함안 지역의 각수가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함안은 목활자본 문집 편찬이 활발한 데다가 조선시대에 닥종이가 함안의 특산물이었다<sup>67)</sup>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함안은 경남지역에서 산청·합천에 이어 전통시대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로서 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었다고 파악된다.

경북 고령의 각수로 전해택이 등장하는데, 고령은 함안과 북쪽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서로 내왕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 4. 맺음말

이 연구는 경상남도 함안지역에서 간행된 68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대상으로 문집 간행의 구체적인 양상과 출판문화사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우선 함안의 역사, 함안의 인물, 함안의 서원과 책판을 조사를 통해 목활자본 문집 간행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문집의 유형, 저자사항, 간행사항, 형태사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1) 문집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문집 68종 가운데 문집은 41종(60.3%), 유집은 16종(23.5%), 실기는 11종(16.2%)이다. 전체 68종의 문집 가운데 1인의 시문집인 별집은 67종(98.5%)이고, 2인 이상의 시문집인 합집은 1종(1.5%)으로서 『모암송계합고』가 유일하다. 시만 실린 시집은 『석남시집』이 유일하다.

(2) 목활자본 문집 68종 가운데 출생연도가 파악된 저자 66인의 출생연도를 분석해 보면, 저자 66인은 모두 조선 시대에 출생한 인물로서 15세기 전반인 1436년에 출생한 『매헌선생실기(梅軒先生實記)』의 이인형(李仁亨)부터 19세기 후반인 1893년에 출생한 『금계집(琴溪集)』의 조우식(趙祐植)까지 457년의 간극이 있다. 함안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저자 66인의 출생연도 분포를 100년 단위로 분석해 보면, 15세기 5인(7.5%), 16세기 14인(21.2%), 17세기 9인(13.6%), 18세기 9인(13.6%), 19세기 29인(43.9%)으로 19세기 인물이 가장 많고, 다음이 16세기이며, 17세기·18세기, 15세기의 순이다.

(3) 목활자본 문집 68종을 간행한 저자 68인의 성관은 모두 21개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성관은 15종을 간행한 함안조씨이고, 다음은 10종을 간행한 순흥안씨, 다음은 7종을 간행한 창원황씨, 다음은 5종을 간행한 재령이씨와 성산이씨, 다음은 4종을 간행한 광주안씨와 김해김씨, 다음은 3종을 간행한 인천이씨, 다음은 2종을 간행한 경주박씨와 장수이씨이며, 1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성관은 11개 성씨로서 경주김씨, 안동권씨, 포산곽씨, 나주나씨, 남평문씨, 분성배씨, 전주이씨, 함안이씨, 경주정씨, 성주주씨, 여양진씨이다.

(4) 경남 함안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68종은 모두 19세기 이후에 간행되었는데, 이 가운데

67) 함안군,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2권, 경상도(慶尙道).

에서도 20세기 전반부인 1900년-1949년까지의 50년 동안에 전체 68종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51종이 간행되었고, 20세기 후반부인 1950년-1973년 까지 11종이 간행되어 20세기에 62종(91.2%)이 간행되었고, 19세기에 5종(7.4%)이 간행되었다. 함안에서 목활자본 문집은 대부분이 20세기에 간행되었으며, 특히 20세기 전반기에 목활자본 문집 간행이 활발한데, 이는 경남지역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5) 경남 함안지역에서 간행된 68종의 목활자본 문집은 저자 사후 2년부터 사후 492년까지 문집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문집 68종 가운데 100년 단위로 보면, 목활자본 문집은 저자 사후 1-100년 사이에 32종(47.1%)이 간행되었으며, 저자 사후 101-200년 사이에 11종(16.2%), 저자 사후 201-300년 사이에 13종(19.1%), 저자 사후 301-400년과 401-500년 사이에 4종(5.9%)이 간행되었다. 함안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은 저자 사후 10년 이내에 가장 많은 13종(19.1%)이 간행되었다.

(6) 문집 68종 가운데 문집의 인기나 판권지를 통해 발행소를 파악할 수 있는 문집은 34종이다. 함안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의 발생소를 분석한 결과 재실(齋室)이 14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누정(9종), 서당(4종), 서원(2종) 순이다. 함안지역에서 문집이 발행된 재실로는 感慕齋, 廣川齋, 道川齋, 望華齋, 新巖齋, 念修齋, 靈棲齋, 臥龍齋, 遠慕齋, 只山齋, 采薇齋, 追慕齋 등이다. 함안지역에서 문집이 발행된 누정으로는 山下亭, 一山亭, 鳳山亭, 聚友亭, 合江亭, 琴湖亭 등이 있다. 문중에서 건립한 재실이나 정자에서 문집 발행이 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문집간행이 선조를 현창하려는 문중의 사업이었음을 말해 준다.

(7) 문집 권말의 판권지를 통해 목활자본 인쇄자, 즉 각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함안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68종 가운데 권말에 인기나 판권지가 있는 책은 16종으로 인쇄자, 즉 각수는 함안의 이장호, 이현량, 국진호, 이의갑, 임기후, 진기술 등 6인, 고령의 전해택, 함 7인이다. 목활자본 문집 생산의 수요가 많은 함안에 인쇄자인 각수와 질 좋은 닥종이가 구비되었다는 사실은 지식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로서 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었다고 파악된다.

이 연구의 결과를 인근의 의령, 진주 등 인근 지역의 연구와 비교하면 함안지역 목활자본 문집 간행의 독자성이 더욱 명료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大東地志』.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경남 서부지역의 고문헌』 I, II, III. 진주: 가람출판사, 2008.

구산우·이정수·장성진·최정용. 『경남의 서원』. 서울: 선인, 2008.

김봉곤. “嶺南地域 蘆沙學派의 成長과 門人 鄭載圭의 役割.” 『남명학연구』 제29권(2010. 6). 29-76.

송정숙. “경남 거창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양상.” 『書誌學研究』 제83집(2020. 9). 5-43.  
 송정숙. “경남 산청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양상.” 『서지학연구』 제68집(2016. 12). 201-245.  
 송정숙. “경남 진주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간행양상.” 『서지학연구』 제77집(2019. 3). 251-286.  
 송정숙. “경남 합천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양상.” 『서지학연구』 제73집(2018. 3). 205-246.  
 송정숙, 김시내. “경남 의령지역의 문집 간행양상.”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50권 제4호(2019. 12). 305-337.  
 이노우에 스스무 지음, 이동철·장원철·이정희 옮김. 『중국출판문화사』. 서울: 민음사, 2013.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 『경남지역의 목판자료』(2).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8.  
 咸安文化院. 『咸安樓亭錄』 1-2. 함안: 咸安文化院, 1988.  
 허권수 외. 『함안의 인물과 학문』(I). 함안: 함안문화원, 2010.

경남도청. <<https://www.gyeongnam.go.kr/>>.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교문헌시스템. <<http://nmh.gnu.ac.kr/>>.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www.itkc.or.kr/itkc/Index.jsp>>.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http://www.ugyo.net/>>.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enter for Overseas Resources on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http://kostma.korea.ac.kr/>>.  
 Department of Archives and Special Collections: Moon Cheon Gak.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ttp://nmh.gnu.ac.k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Gyeongnam Culture. 2008. *Ancient Books of Western Gyeongsangnam-do Province I, II, III*. Jinju: Garam Publisher.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https://www.gyeongnam.go.kr/>>.  
 Haman Cultural Center edit. 1988. *Haman's Pavilion 1-2*. Haman: Haman Cultural Center.

- Hur, Kwon-Su, et al. 2010. *Figures and Learning of Haman (1)*. Haman: Haman Cultural Center.
- Inoue, Suzuki. Translated by Lee, Dong-cheol, Jang, Won-cheol and Lee, Jung-hee. 2013. *Chinese Publishing Culture History*. Seoul: Minumsa.
-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Korean Classics Portal.  
<<http://www.itkc.or.kr/itkc/Index.jsp>>.
- Kim, Bong-Gon. 2010. "The Rise of Nohsa Scholars' Faction in Youngnam Region and Nohsa's Disciple Jeong Jae Gyu's Role." *The Nammyonghak Study*, 29: 29-76.
- Koo, San-woo, Lee, Jung-Su, Jang, Sung-jin, & Choi, Jung-Yong. 2008. *The Seowon of South Gyeongsang Province*. Seoul: Seonin.
-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ttp://kyujang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Korean History Database Portal.  
<<http://www.koreanhistory.or.kr>>.
- National Library of Korea. KORCIS (Korean Old and Rare Collection Information System).  
<<https://www.nl.go.kr/korcis>>.
- Song, Jung-Sook. 2016.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at Sancheong-gun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Korea."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8: 201-245.
- Song, Jung-Sook. 2018.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at Hapcheon area, Gyeongsangnam-do Province Korea."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3: 205-246.
- Song, Jung-Sook. 2019.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at Jinju Area, Gyeongnam Province Korea."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7: 251-286.
- Song, Jung-Sook. 2020.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in Geochang County Area, Gyeongnam Province Korea."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83: 5-43.
- Song, Jung-Sook, & Kim, Sinae. 2019.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at Uiryeong (宜寧) Area, Gyeongnam Province Korea." *The Journa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4): 305-337.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http://encykorea.aks.ac.k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General information on Korean historical figures TOTAL DATABASE*. <<http://people.aks.ac.kr/index.ak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Digital Local Culture Encyclopedia of Korea*. <<http://www.grandculture.net/>>.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Basic Learning Development Project Group. 2008. *Woodblock Materials in Gyeongnam Province 2*. Andong: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Ugyonet*. <<http://www.ugyo.net>>.

